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戰爭不可避形勢로 壽府外交界大緊張

佛首相長距離電話로 무氏最後說服

各國代表의 往來頻繁

【주네브十一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의 强硬態度에 聯盟은 空前의 難局에 直面하게되엿다 佛國代表部는 十一日夜의 總會終了後 伊太利關係 주네브의 國際政局은 特히 異常한 緊張을呈하여잇다 英國代表호어外相의 演說은 强力한 爆彈을包藏한 外交政策에 끈치지안코 聯盟各國이 集團的安全保障을强行하지안는限 英國政府로서는 光榮잇는 孤立政策으로 復歸하야 歐洲大陸의 紛糾로부터 超然하야 獨自의 安全保障을 探究할決意라는것을 示唆한것이라고 解釋되며 右演說의 草稿는 十日會見에서 호어英外相으로부터 라발佛首相에게 內示를完了하엿는데 라발首相은 右草稿를 一讀하고 英國政府의 强硬決意를 看取하고 十一日午前總會가 開會되기前에 羅馬에 長距離電話를걸어 뭇솔리니首相의 說服에最後의 努力을다한것이라고 解釋되며 以上電話會談에 對하여는라발首相은 五人委員會의 委員으로서의立場을 放棄하고 友邦佛國의 首相으로 뭇솔리니首相의 反省을促한것이라고 觀測되는데 軍事行動을 敢行하려하는 뭇솔리니首相의 決意는 조금도動치안코 라발首相의 勸告에對하여도 조금도 聽從하는비를보이지안헛다고한다 그러나 라발首相은 伊에和協工作에 一縷의 希望을붓치고 호어外相의 演說로 뭇솔리니首相의 態度가 多少變할것을 期待하고 잇는模樣이다 그러나 消息通의 見解는 뭇솔리니首相의 旣定方針은 絶對로動하지안코 佛國政府로서는 마츰내 羅馬協約에基하야 뭇솔리니首相의 行動을默認할는지 英國과 協力하야 聯盟規約을 援護할는지 最後的對策을 決定치아니치못할時期에 臨하여잇다 重大決定을 압두고 라발首相은 十一日夜 호어英代表와會見하고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고 席上에서 라발首相은 總會에서 演說을 十二日로 延期한다는 旨를 通告하엿는데 外交工作決定前에 라발首相으로서도 充分 本國政府와 妥協을遂하야 萬全의 處置를 講究할方針이라고 解釋되다 그리고 호어外相은 라발首相을 午餐에 招待한後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과 會見하기로되엿다 (寫眞은 뭇소리니氏)

伊首相의强硬態度로
聯盟·空前의危機에直面

Benito Mussolini

深井日銀總裁 高橋藏相訪問

【東京電話聯合】深井日銀總裁는 十一日午前九時半 赤坂의 私邸에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要談十分後 辭去하얏다

野蠻國視에對한 調査委員派遣을要請

에國代表의演說 (再開後)

【주네브十一日發聯合】十一日聯盟總會本會議는 午後一時七分에 이르러 一旦 休憩에 入하얏다가 同四時十五分(日本時間十二日午前零時十五分)再開 繼續하야 一般討議의形式으로 에디오피아代表 하와리아트公使의 演說로 드러갓다 同公使의 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에디오피아는 聯盟이 에디오피아에對하야 調査委員을 派遣하야 에디오피아를 野蠻國이라고하는 伊太利의主張이 正當한가 하는 與否를 調査하기를 要請하는바이다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 否認要求를 爲始하야 에디오피아를 野蠻國이라고하는 實例를 보히는 資料等을 伊太利代表가 提示하엿스나 그眞實은 主로 僞造한것이라고 斷言할수잇다 聯盟이 에디오피아의 要請을 容認하야 에디오피아에 調査委員을 派遣하는것은 即에디오피아國民에 正義에 對한 希望을 與하는것이 될것이다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의 天然資源開發에對한 國際的援助를 歡迎하는것으로 余는 我에디오피아皇帝의 名義에 依하야 에디오피아는 善隣下에서 되는 合理的援助에는 如何한 提議를不問하고 此를 受諾할 意思가잇다는것을 言明하는바이다

다음에 英國代表 부루스氏는 約二十分間에 亘하야 左의 要旨로서 演說하엿는데 부루스代表의 演說은 에디오피아紛爭問題에 對한 英國國民의 態度를 明示하는것이라고하야 자못 注目을 끄럿다 余는 各國代表에 對하야 伊에對하여는 조흔 滋養物을 攝取하야 治療할수잇는것과 同樣으로 今日의 伊에 紛爭에 關聯하야 世界不戰條約의 維持를 玆에 强調하기를 바라는바이다

【주네브十一日發】이어 匈牙利代表 방크로스氏는 別項과如히 軍備平等權要求를 强調하고 最後에 墺太利代表 웰게네르氏가 이러나 匈牙利代表와 同樣으로 軍備平等權供與를 力說하고 第三日의 聯盟總會를 終了하엿다

聯盟總會第四日 十二日午前에續開

【주네브十一日發聯合】聯盟總會第四日의 本會議는 十二日午前十時半(日本時間午後六時半)에 開하고 前日에 繼續하야 一般討議의 形式으로 各國代表의 演說을 行하기로되엿다

英代表의演說을 伊國은默殺方針

從來立場强調에不過

【羅馬十一日發聯合】英國代表호어外相이 十一日午前 總會에서 聯盟擁護의 熱辯을 吐한데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이미 豫期하엿든바이엇으로 별로놀나움을보히지안코 聯盟에 關한限 에디오피아問題는 이미 解決되엿다는 態度로 聯盟總會에잇서 抽象的論議는 一切默殺하기로되여 호어外相의 演說에 對한 伊太利政府側의 見解를 要約하면 左와如하다

一、從來 英國政府가 闡明한 立場을 反覆强調한데 不過함으로 特別히 놀낼것은 못된다 但호어外相이 今回의 紛爭에 對하여는 英國政府는 何等物質的利害關係가 업다는 言辭를 弄하고 잇는것은 事實을 歪曲하는것이다

一、호어外相은 專然 集團的安全保障과 聯盟의 原則擁護를 强調한데 不過하고 聯盟이 集團的制裁行動으로 나가지안흘時에는 英政府가獨力으로 制裁行動을 取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나 何如든 聯盟에關한限 에디오피아問題는 解決되엿슴으로 호어外相의演說에 對하여는 勿論 佛國라발首相이 十二日總會에서 如何한 意見을

佛批評家絶讚 호어英外相演說을 聯盟總會最上의것

【주네브十一日發聯合】호어外相의 演說에 對하야 當地에잇는 佛國의有力한批評家는 稱讚하여 日 호어外相의 演說은 聯盟總會에行한 가장卓越한 演說의하나이다 大戰當時傍役에서 나타나花形役이엿든當時의 카존卿을 想起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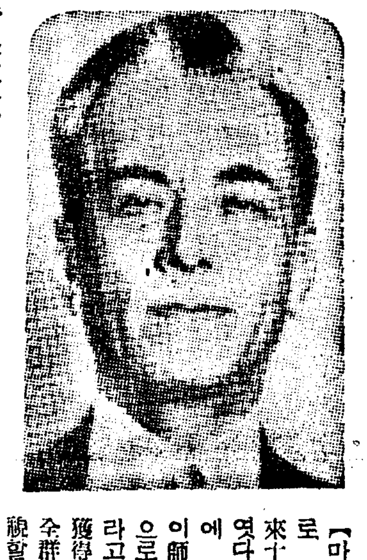
伊에間의開戰은 十月十日頃 羅馬外交界觀測

【羅馬十一日發聯合】伊에兩國의 開戰은 거이旣定事實로 보게되엿는데 開戰期日에 對하야 羅馬外交界에서는 十月十日 前後라는 見解가 有力하다 右開戰期日에 關한 情報는 伊太利政府側에서 나왓슴으로 相當히 確實性이 잇다고 보는데 當局에서는 公式確認을拒否하고 잇다

大統領選擧戰으로 全比島의人心沸騰

괘손氏優勢로아將軍派直接行動說

來十七日에政戰開始



【마닐라十二日發聯合】比律賓聯邦은 드듸여 來十一月十五日에 獨立國으로 東亞一角에 誕生하게되엿는데 獨立을 압두고 初代大統領의 選擧가 來十七日에 執行됨으로 全群島는 바야흐로 自然的政戰의 巷으로 化하엿다 政戰에 出馬한 候補者는 上院議長마누엘케손氏 獨立運動의 盟主에미리오·아기날드將軍 比島獨立카톨릭敎會의 司敎그레고리오·아그리파이師의 三名인데 政戰結果에 對한 下馬評은 이미 決定되여 上院議長으로 多年比島獨立運動에 盡瘁한 케손氏가 當選될것은 틀림업스리라고 觀測되며 總投票數는 百五十萬으로 豫想되는데 其中 八十%까지 獲得하야 當選되리라는것이 케손側의 觀測이다 그러나 아그리파이師는 全群島에 百五十萬乃至二百萬의 信者를갓고잇는마큼 其勢力은 손쉽게輕視할수업다 同師는 元來카톨릭敎의 聖職者이나 一八九六年에는 아기날드將軍과함께 西班牙政府에 反旗를드럿고 一八九九年에는 米國政府打倒運動을 이르킨 一代의 革命兒로 羅馬法王을非難하다가 破門을當하고 獨立敎會를組織하엿다는 逸話도 갓고잇다 往年의 志士 아기날드將軍은 그리人氣가 조치못하야 最下點에 떠러지리라고 觀測되나 將軍支持派는 秘密히 直接行動을 企圖하고잇는 模樣으로 케손上院議長의 選擧本部에서는 아기날드將軍一派는 케손上院議長暗殺을 計畫한다고 忌憚업시 公言하고잇다 政戰은 마침내 週末에 接近함과함께 全群島到處에 暴行이잇서 比島政廳은 選擧取締에 奔忙하고잇다 (寫眞은 케손氏)

존슨米大使 國府에國書捧呈豫定

【電通上海十一日發】米國大使존슨氏는 平漢線으로 北平發 南下하야 十日夜 늦게 漢口에 到着하엿는데 數日中에 南京에로 赴하야 林森主席에게 國書를 捧呈할터이다

八面鋒

◇實戰이 열리기도前에 舌戰으로 한창.

◇世界政局의 測候所 國際聯盟에는 技師의 意見發表뿐、天氣豫報는 休報。

◇戰爭도 나기前에 戰爭景氣라고 株式市勢가 暴騰。

◇돈쫌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온다고 깃버하는 旱天의喜劇이라할가。

◇勝敗는 在天이오 興亡은 有數라니 何者勝 何者敗는 第三者 알바아니나、

◇불난집에 도적格으로 幸人之不幸하야 한세월보자하는 世道人心이 가엽서라。

蘇聯의脅威를强調 히總統宣言朗讀

反抗하는者는容恕업시膺懲

나치스年次大會에서

【電通뉘른베르히(獨逸)十一日發】十一日當地에서 開催된 나치스의 年次大會에 特히 出席한 히틀러總統은 左의 主旨의 宣言書를 朗讀하야 多大한 注目을 惹起하얏다

獨逸의 國粹社會黨은 元來歐羅巴大陸의 如何한 國家에對하야도 侵略的意思를 有치안코 오즉 平和維持를 理想으로 하고잇는바 現在歐羅巴의 平和에對한 最大의 脅威는 蘇聯邦의 볼쉐비즘이며 將來도 이危險은 減少되지안흘것인바 我等 나치스는 이에 對하야 充分히 用意를 가지고잇다 我等에 對하야 組織的으로 反抗하는 者잇스면 我等은 即時이러나 此를 膺懲하고 조금도 容恕치안흘것이다 如何한 國家도 나치스獨逸을 弱하게 할수는업슬것이다 我等의 平和的意圖를 破壞하려는 如何한 國家가잇스면 나치스獨逸은 全力을 다하야 此를 擊破할뿐이다 (寫眞은 히틀러氏)

日本牽制키爲해 蘇聯進出을容認

國府內에容共政策再燃形勢

中對蘇抗議中止眞相

【上海十二日發聯合】過般蘇聯邦코민테른의 決議에 對하야 國民政府內의 親蘇派의 暗躍으로 드듸여 抗議提出을 中止한 眞相은 大體로 如左한것이라고傳한다

即 國府部內에는 이미 容共政策이 再燃되여 蘇中提携實現을爲하야 新彊에잇서서 蘇聯의 活躍을 全面的으로 承認하려하는 意圖를 갓고잇는것이明瞭하게되엿다 即 駐蘇大使館附武官 鄧文儀가 現在 新彊地方의 視察을 行하고잇는것은 그의一端으로 右報告를기다려 駐蘇顔惠慶氏는 蘇聯當局과 折衝하리라하며 그리고 國民政府가 蘇中提携를企圖하게된 眞意는

一、甘肅、陝西의 共産軍討伐이 事實上 不可能하야 現在 陝西山西西境에서 共匪軍을討伐하고잇는 山西軍將領도 西北의 一定地域을 蘇聯區로 承認하야 政治的解決을 圖할것이라고 獻言한것

一、感情的으로 日本을牽制키爲하야 蘇聯과聯結할것이라고하는 親蘇派의 勢力이强化하여진것

一、實質的으로는 蘇聯派과 다름업는 新彊의 蘇聯勢力을 承認하드라도 何等痛痒을感할것이업슬뿐더러 名目的으로라도 主權을 確保하는것은 中國에 對하야 有利하다는것

等의理由가 伏在하여잇는것이라고 解釋되는바 이氣運에 끌니여 國府部內 親蘇派의暗躍과蔣行하야 보고모로프氏以下 蘇聯의駐外當局의 活躍은 容共政策實現에一層拍車를 加하리라고觀測되다

匈墺兩國代表로부터 軍備平等權要求

十一日聯盟總會席上서

【電通주네브十一日發】獨逸이再軍備擴張以來 匈牙利도 이에模倣하야 再軍備에 進出하리라고 보아 注目을 끌고잇든 此際 今回의 聯盟總會席上에서 匈牙利代表방크로스氏는 左와如히演說하야 匈牙利는 斷然 軍備平等權을 要求한다는 旨를宣明하엿다

匈牙利는 일즉이 平和條約에서 賦課된 軍備不平等의 立場으로부터 脫却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余는 萬若 度軍備諸國이 軍備를 行하지 안는 匈牙利에 對하야 平和條約의 軍備條項을 固執하는지 안는지 玆에 敢히 質問하려하는바이다 武備업는國에 武備를가준 諸國과 同一한軍備權을 與할것은 當然한 일로 何等疑心할 餘地가업다 匈牙利는 軍備條項의 現狀持續는 斷然不可能하다고 思惟한다 이現狀의 變更如何는 匈牙利에 對하야는 實로 死活問題이다

【電通주네브十一日發】今日聯盟總會席上에서 匈牙利代表가 匈牙利에對한 軍備平等權의 供與를 要求한後 墺太利代表 웰게네르氏도 墺太利에 對하야도 軍備平等權을 供與할것이라고 左와如히 要求하엿다 余는 軍備平等權을 供與하지 안코는 集團的 安全保障制度의確立을 期하기不可能하다

女軍出征

「에디오피아」의 一富豪令孃이 指揮

【아디스아베바十一日發聯合】祖國의 危急을 坐視할수업서 皇后의 許諾을 어더가지고 蹶起한 에디오피아最初의 女子軍一隊가 아디스아베바의 젊은富豪의 令孃데할로스孃의 指揮下에 數日中에 戰線으로 向하야 首都아디스아베바를 出發하기되엿다 從軍志願者數는 一千名을突破하야 女子軍本部는 各志願者에게 嚴重한 身體檢査를 施行하야 激戰에 忍耐할수잇는者에게 最初訓練을 施行할方針이다 總指揮데할로스孃은 歐羅巴式의 카키色正服에 赤色띄를두르고 麾下의 女子軍도 各其小銃과 拳銃을 携帶하고 아디스아베바의 거리로 颯爽히 지나가고잇다

英緊急閣議開催

【電通倫敦十一日發】英國政府는 十一日朝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二時間에 亘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右는 伊에紛爭問題를 討議한것이라고 解釋되는데 호어外相이 聯盟總會에서 强硬한 聯盟擁護의 演說을 行한 此際 閣議의 結果는 자못 注目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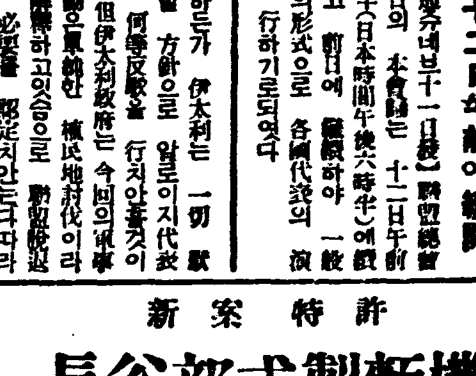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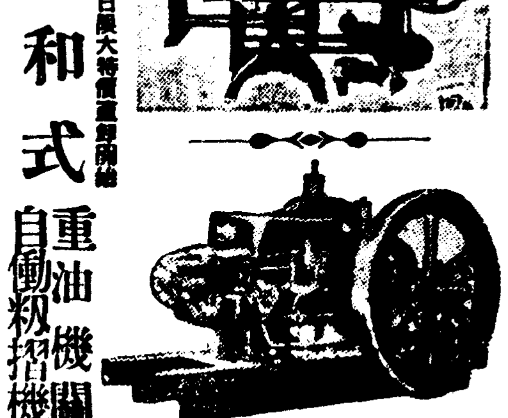
에디오피아皇帝 外人將校招聘

【아디스아베바十一日發聯合】戰機切迫과 함께 에디오피아皇帝하일셀라시에一世는 마침내 正式으로 外人將校를 雇入하야國軍의 訓練充實을 圖하기로 決定하엿다 十一日에는 白耳義陸軍豫備將校十四名이 아디스아베바에 到着하야 直時 步兵部隊의指導에 當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瑞西陸軍將校二十名도 近近到着하야 高射砲操縱訓練에 當할 豫定이다

伊에紛爭에規約無視되면 英國은聯盟脫退

호아外相演說에서暗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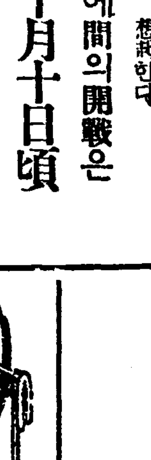
【電通주네브十一日發】호어英外相의 演說은 終始聯盟의 妥當性을 强調하고 特히 聯盟이有效한 機關으로 存在하는以上 聯盟規約에對한 英國의 態度는 變함이업다는것을 暗示한것이라하야 多大한 注意를 끄럿다 따라 佛國으로서는 伊太利를 支持하는 國家가 伊에紛爭에잇서 規約의 存在를無視하면 英國은聯盟으로부터 脫退할는지도 알수업다는것을 暗示한것이라하야 英國을 일케될으로 라발首相은 英伊中間에서 調停役을 選擇할것이냐는 디렘마에 逢着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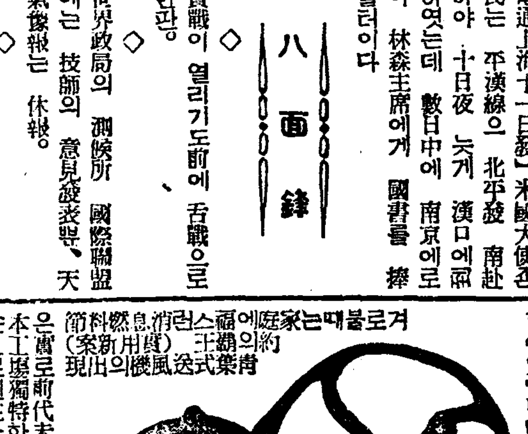
特許案新
長谷部式製麵機
製麵機中覇王

九月二十日最大特價廣告開始
伸和式 重油機關 自働籾摺機 配給所

自二馬力 至十八馬力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京城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製造販賣元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三四七一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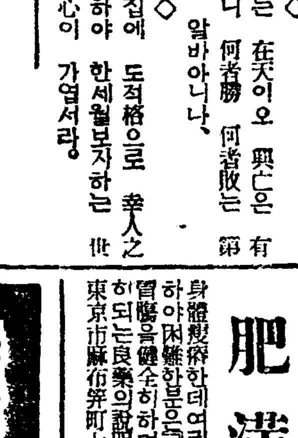
農村兄弟의 便利한機關 一次試驗하야 보시면 信用을可辨
營業課目
稻子其他 特産物貿易 委托買賣 稻子擔保 融資業
匿名組合 哈爾濱中馬路五號
翔孚公司
經理 金應周 張雲翔 理事 李殿選
電話道裡六四〇四番

副業에紙袋製造
近者新聞紙上에 여러가지職業이 宣傳되고잇스나婦女子라도 손쉽게小資本으로 될수잇는 깨끗한일로서 紙袋製造만큼 適當한것은 아마업슬줄안다 오래製袋商으로서의 經驗으로 苦心考案한結果 新案特許二件을 獲得하엿스나 機械를完成한 素人이라도처음부터 製品에 優劣이 안나고 自然完全하게될수잇는 簡易製袋機로서 자랑할수잇는것이다。我國唯一 現在弊所의 專屬으로써 製造者를 急募中임으로 市內地方을 不問하고 希望者는 오래營業하고 確實한去來를하는 副業으로 申込하라 當所에 樂으로 부러未久에 本業으로 되야生活安定을꾀하도록 懇切히 希望합니다。照會에는 第三種 紙袋販賣의表를 進呈함니다。

新案特許 第一〇七四〇四號 第一二一八一〇號 ハンドル式及足踏式ノ二種
大阪市天王寺區堀越町四二番地(アベノ橋北一丁)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電話天王寺二六一七番 振替大阪三三八〇五、八一〇六七


自轉車材料 原價奉仕 信用問屋
製造元より直接皆樣へ
特典付 進呈
諸官廳納品
直營元祖 自轉車製作 日英商會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の六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겨울로부터는家庭에도 福스런消息 燃料節約의覇王 (實用新案) 靑葉式送風機의出現
本機는純鐵製임으로構造가堅固하야永久使用에適當하며風力이猛烈하야僅少한燃料로最大의能率을擧할수잇슴니다따라서價格은低廉함
本工場獨特한創案이오純全히우리손으로된完全한家庭的重寶임니다 詳細要照會
京城靑葉町一丁目一八〇 靑葉式送風機製造發賣元
靑葉鐵工所
電話(龍山)一〇二七八番 振替京城一〇〇三三番

肥滿劑


身體肥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하는분은「藥書」로申請하면體質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하게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콜럼비아蓄音機
樂器界의重鎭이고 樂器店으로元祖인
平壤南門通 常信樂器店

「寫眞은」平壤鐘路·(常信樂器店)
여러분들의試聽室로!! 오시여試聽하시요!!
平壤鐘路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二番

OKEH 오늘에流行하는 新民謠 압강물흘러 오케-레코-드(一七六六番) 李銀波

粗製品防止目標로 漢方製藥業을統制

總督府衛生課에서研究中

方法如何가難問題

총독부 위생과에서는 조선의한약(漢藥)제조를 통제하야 의약으로서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게하는 동시에 최근 한약매약품으로 극히 조제람조(粗製濫造)品이 만히 일반에게 끼치는 폐해가 만흔것을 제거하기위하야 한약제조의 음세를단행케되엇다한다 현재와 가티 제약자가 각지에 다수 산재하여서는 그 취체와 지도가 곤난 함으로 특수한 사정이 잇는것외에는 될수 잇는대로 한도시에 하나나 둘씩 회사조직으로 통제하야 제조기술에 대한지도와 조삽품의 취체를 단행하야 한방의학(漢方醫學)의발달을 도모하려는것이라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종의 개인적기업으로 되어잇든 한약제조는 회사조직에의한 근대식 경영을주로한 통제방책에 의하야 한방의약업자체의 발달은 여하튼 군소한약제조업자에게 물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자못클것으로 보이는바 조선과 가티의료계(醫療界)와 매약영업에잇서 상당한세력을 가젓고 따라서 널리민간에 리용되는 한약판매의 분야에도 상당한 변혁이 생길것으로 매우주목된다한다 그러나 현재한약은 현재약만을 주업으로하는 소위건재국(乾材局)이란것도잇스나 대개는 의생(醫生)이 제약을 겸하고 잇서서 한방제약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방식으로나 될런지극의문이다 즉현재에도 의약분업(醫藥分業)의실현을 보지못하고잇는이때에 매약수입은 수입의대종으로삼는 한방의약에 잇서서 약업을 통제합동식힌다는것은 극히어려운문제로 금후당국의 처치가극히주목되는바이다

製藥業合同으로 會社組織을從慂

精製藥의供給을爲해必要타는

衛生課橫山技師談

전긔와 가튼한약제조업의 통제문제에대하야 총독부위생과 횡산(橫山)긔사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조선에잇서 한약매약은 리용자의 경제적보건의미에서 매우중요한 의약임으로 이것을 잘지도하야 조흔약을 공급하게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재와가티 군소제조업자가 산재하야 함부로 제조판매하게되면 너무 옥석혼효(玉石混淆)가되야 민중보건상경제상 악영향을 미치게됨으로 금후는 될수잇는대로 제조업자의 합동에 의한회사조직에 의하야 조흔한약을 제조하도록 취체감독을 한층더엄중히하야 통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그실시에 힘쓰려한다』

戰鬪機空中分解

【龍通館山電話】십이일 오전아홉시반경에 관산(館山)항공대륙상전투긔(陸上戰鬪機)보국제오십사호를 이동항공병 상대회삼(相澤楠三□□)이 조종하야 비행훈련중 나고정(那古町)상공일천메—타—의 고도(高度)에서돌연히큰 음향과함께 공중 분해를 이르켜 프로메라와엔진 이빠지여 그대로 동정 천기(川崎)해안에 떠러 지려는것을 상대조종사는 파손긔(破損機)를조종하야 천천히 상공을선회하면서 동정 피병원압논(畓)사이에 떠러젓는데 상대조종사는 외편눈과 외팔에 중상을 닙고 인사불성으로 부근병원에서 치료중이다

◇今日、秋夕의 省墓 (리태원에서)

明夜로迫頭한 待望의바리톤의밤

金文輔氏獨唱會、伴奏李興烈氏

滿都의人氣는沸騰

본사학예부주최인 김문보씨 독창회(金文輔氏獨唱會)는 한번발표되자 과연만도(滿都)의 인사긔는 뒤끌어 수만흔 음악팬들의 이날이 오기를 손곱아 기다리든 초조한 대망가운데서맛침내 명십삼일밤 일곱시반 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열니기로되엿다。

씨의 예술이 엄마나 원숙한경지에 이르럿는가는 지난칠월본사주최시나 또최근에는 재동경조선음악가협회(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의 고토방문 음악회(故土訪問音樂會)가 서울을 비롯해서 각지에 열렷슬때 그지회와 독창으로서든지 우리가 짐작하지못한바는아니나 오히려 이런것들은 씨의예술에 잇서서는 그어느토막에 지나지 못하는지라 우리는이번독창회를 통하여 씨의원만하고 로숙한 예술의 전면에접할 긔회를 가지는것이다。씨는 이번독창회와 본사주최인 음악『콩쿨』의 심사를 맛친뒤에는 또 다시 공동경으로 건너가야 할터이다 우리가 음악단벽두에 남기고가는 이번 씨의 독창회는 씨의 예술적심회와 정서를 살펴보아서도 일측이보지못하든 감격의 장면을 보혀줄것이며 더구나 때맛침 중추긔망(仲秋旣望)이라 하늘의 영롱(玲瓏)한달빗과 지상에 표묘(縹緲)하는 음률이 함께 어우러저 명야의독창회야 말로 이땅에도 황홀한도취와 몽환의 경지가 버러진것을 상상할수잇는것이다。

그러고 반주자인 리흥렬(李興烈)씨는 신진의피아니스트로서 그려랑과 포부가 그다지널니알니워지지는 아니하엿스나 김문보씨와가튼 자긔의 예술을리해하고 또한빗나게하는데 잇서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의반려자(伴侶者)라고아니할수업슬것이다

土兵團이出現 村公署占領

【警務局着電】구일오후 십시경에 평북창성(昌城)서 창주(昌州)주재소대안인 관전현 포석하촌(蒲石河村)공서에 무장단체청(海青)일파륙명이 침입하야 촌공서 부근의 만주인손모(孫某)의집에 방화를하고 만주인한명을 랍거하고 다시 그곳으로부터약 반리의 거리에잇는 고창만촌(廣倉滿村) 공서에 침입하야 그곳을 점령하고 무엇인가를 획책하고 잇다 하야 창평(昌坪)출장소원 륙명은 원경하야 십일오후 세시에 고창만촌에 월경한 무장단은 토벌대의출동을 알고 대백채지(大白菜地)에 도망하엿슴으로 조선측경관은 도라왓다

徐路得氏送別會

다년 조선의 종교계와 교육계를 위하야 진력하야온 스와인하-트(徐路得)씨는 금번 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專)의 사건과 재단완성에 대한 긔부금을 모집하기위하야 근일중 미국에 돌아가게되엿는바 이거사의 성과를 빌기위하야 아펜설라씨 강운림(姜雲林)씨 양주삼(梁柱三)씨등의 발긔로 다음과가티 송별회를 열기로 되엿다

時日 九月二十日(金曜) 下午六時
場所 明月館
會費 一圓(當日持參)

求婚拒絶當하고含怨 女子에暴行致死

犯人은海州署에被逮

【海州】지난 팔일 오전팔시경부터 동일오후 네시경 까지의 새에 해주군 운산면 황금리 암전동(海州郡雲山面黃金里岩田洞)리종우(李鍾禹)의 삼녀 리넷재(一七)란 십팔세의 묘령의 미인이 어떤자로부터 흉긔의 타바상을 바다 유혈이 랑자하야 혼수상태에 잇는것을 가족이 발견하고 놀라 즉시 소관 해주서(海州署)에 급보하는동시에 해주구세병원(海州救世病院)에 입원치료중 드듸여 동일밤 절명되엿다 해주서사법게에서는 곳활동을개시하야가해자인전긔운산면황금리사는 리종근(李宗根)(二〇)을검거하고 본서에 인치하고 살인죄(殺人罪)로 엄중한 취조를진행인데 피해자 리녀는 일측이 미모의 소유자로서 늘동리 남자의 화제에 올라온동 전긔 리종근이 결혼을 청하자 이를거절하고 그부근 동리 모씨에게로 출가를하엿다가 시집사리를 그만두고 최근 친정에 도라와 잇섯는데 전긔가해자 리종근은 다시 미련을 가지고 팔일에 리녀가 혼자잇는 틈을타서 리녀의 집을심방하야 재차 사랑을 하소하다가 도거절을당하매 분에못이겨 『숏똑겅』으로 안면 기타를 란타한것이라한다

‖九月十三日밤七時半‖ 本社大講堂에서

바리톤 名歌手 金文輔獨唱會

‖主催 朝鮮日報社學藝部‖

會費		
白	券	1·00
青	券	·80
學	生	·50

成川市內電話 公式交換開始

【成川】수년전부터 문제가되여 오든 성천시내 전화가설문제는 거월이십팔일이후 십일간에 제박공사와 설비를 맛추고 구월팔일부터는 림시로 시내교환만을 실행하여오든바 동십삼일부터는 공식교환을 개시하는동시에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일오후 오시부터 조선팔경의 후보지인 동명관강선루(東明館降仙樓)에서 성천관민유지 인사들을 망라한 축하연회가 열리리라한다

大京城에서除外된 纛島全面民憤起

昨日面民大會를開催하고서

區域編入運動을開始

대경성건설계획이 전일발표된바에 의하면 리전한 일도팔면(一島八面)을 편입하기로 되엿다는데 유독히 뚝섬면(纛島面)에 한해서만 지리상(地理上) 경제상(經濟上) 밀접한 관계를 무시하고 이구역에서 제외되엿스므로 면민들은 수년래의 긔대에 배치됨을 크게 분개하야 십일일 오후칠시에 뚝섬학원(纛島學院)에 모혀 면민대회를 열고 뚝섬면민거의전부가 경성시내에 생활근거를 가젓슴은 물론 대경성의 수원지(水源地)가 뚝섬에 잇슬뿐외라 시민에게 일상생활에 업지못할 채소등을 제공하는 뚝섬은 단연코 금번대경성건설을긔하야 시민으로서의자격과 대우를 밧도록 행정구역내에 편입되도록 최후까지운동하자는 결의를하고 동회석상에서 로재원(盧載元)씨외 십일인을 진정위원으로 선출하야요로당국에 진정을 하야 적극적으로 목적관철을 위하야 운동하기로 하고 동십이시에 이르러 해산하엿다

金允培氏特志

【汶山】파주군 림진면 장산리(坡州郡臨津面長山里)에 본적을둔 파주의 유지 김윤배(金允培)씨는 이전부터 파주사회를 위하는 공공사업에 공헌이 만흔바 얼마전에는 경비를 자담하야 무산아동교육학원을 설립하야 파주긔관으로 학원을 설립하엿스므로 동리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同胞通學兒童拉去를劃策

【咸興】함남대안장백현 십삼도구 대북두리(十三道溝大北斗里)강성에 잡재하고잇든 토병상이국(常寬局)의일미 십구명은 작 품다수를 강탈하여가지고 벽지로돌아갓는데 그일미칠명은 혜산진(惠山鎭)으로부터 장백부(長白府)로 통학하는 조선인학생들을 랍거하려고 금월십일 장백부로 잠입하엿다는 회보가잇스며 또조선내로부터 장백현을래왕하고잇는 조선인 유력자들을 랍거하려고 인명도조사를 전부 필하고 귀회만엿보고잇다고함으로신갈파(新乫坡)경찰에서는대안 정찰대를 동려하여 극히 엄중한 경계를하고잇스며 미증유의 긴장을 띄우고잇다 그리고 십오도구대윤덕자(十五道溝大允德子)에 이동한 점산호(古山好)의 일미 이십여명은 동지유력자등이 토변들의자심한 박해로인하여 피난한이후에 머저요구하여엿든금품을 제공치안호면 전부소각하고 총살하겟다고 협박을하고잇는중이며 그중 의주동포오병년(吳炳德)은 매를마주 중상을당하여엿다고한다

俄然滿都洞聽總集注
朝鮮映畵本年度秀逸
강건너마을
羅雲奎氏最近力作
不日封切 團成社

松高學藝部主催 『映畵의밤』開催

【開城】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학예부에서는 삼신문(朝鮮、朝鮮中央、東亞)지국후원으로 구월십칠、팔량일에 부내개성좌에서영화의밤을 개최하리라는데 당일의 푸로그람은 교육사진으로유명한 토명인간(透明人間) 영광(螢光)가의에 상사종의 만화라하며 영화고 교육영화이니만치 특히학생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예매하리라한다

市內某署刑事가 被疑者에게서收賂

有力한端緒를捕捉한道刑事課

關係者를引致取調中

현직형사로서 자긔가 취급하는 사건을 미끼로 다액의뢰물(賂物)을 바더다는 사실을탐지한 경긔도 형사과(刑事課)수사게에서는 이사일전부터 비밀리에 활동을개시하야 부내모서에서 증회혐의로 김(金)모를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들은바에의하면 그는모사건을 자긔에게 유리히 전개식히기 위하야 중간에사람을 통하야 방금부내모경찰서에 근무중인 형사두명에게 다액의 금품을 증여한것이라하며 이사건이 발각되자 중간에섯든 모인물은 어대로 자최를감추어형사과에서는 그의행방을 엄탐중으로 그가체포되는대로증거외사실은 백일하에 폭로되야검거의손은 전긔모경찰서 형사에게도 밋칠듯하야 형사과의활동은 주목되고잇다

今日秋夕을마금으로 쪼껴날梨泰院白骨

추수하는가을에가신님그립다고

省墓客으로宛然成市

새곡식 새실과가 산과들에 넘려보이니 가신이생각이 더욱간절할것이다 한잔술과 한개송편인들 그리운마음 섭섭한회포로 정성을 다해차리고 무덤압헤울어보나 길이잠든그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긔척조차업고보니 성묘온이 눈에서는 눈물샘이 더욱 솟는것이다

더욱이 근년에이르러 팽창되는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추석이면 북망산(北邙山)에 저자가서게되야 살아서 셋방에서 쪼기어다니는 도회인의 잔해는사후백골까지도 다시한번 자리를 쫏기지 아니할수업게되엿다 이달안으로는 다파가라는 울림人장을바든 리태원(梨泰院)묘지에는 이서름저서름이 함께복바처우는 성묘객의눈물이 추석날의 일긔를 음울케하얏다

夫婦싸음끄테 飮毒한女子

중추가절(仲秋佳節)일년중 제일 달이조흔 명월을압두고 생활난으로 자살하려든 녀자가잇다 부내효자동(孝子洞)십삼번지 정태현(鄭泰鉉)의처 리성녀(李性女)(三一)는 십일일오후세시경자긔집에서 다량의 양잿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 그의남편이 발견하고 곳수창동(壽昌洞)일백륙십오번지 광제(廣濟)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은건지게되엿는데 그는 생활난으로 이삼일전에 부부간에 말다툼을한후 그의남편은 이틀동안이나 밤에도 들어오지안하다가 이날에서 들어와 또싸움을 걸므로 그는 비관한 나머지에 자살할목적으로 양재스물을 마신것이라한다

運動競技

"올림픽의밤" 大邱서盛況 各地歷訪完了

【大邱】世界氷上制霸 『올림픽의밤』最終訪問地인 大邱에서는 豫定과가티 十一日밤八時부터 萬鏡館에서 오림픽制覇의 感과 도읍는誠意가한데 어울린感激의모임이 열리어다 定刻에本報大邱支局長 張仁煥氏의 開會辭로幕을열고 常地有志들이 提供한 餘興의映畵를 上映한다음 평권俱樂部幹事 崔龍振君의人事가 잇섯고 평권部長 鄭商熙氏의 日光大會報告、白狗俱樂部崔在殷氏의 選手紹介等이 잇슨後 끗트로 第三回 世界冬季올림픽 大會實寫 日光大會實寫等이 銀幕에 나타날때에는 滿場한 觀衆의歡呼聲이 뜻하지안케 일어나 感激에 넘친 이모임은 同十時半에 閉幕되엿다 이날觀衆은 千餘名을 이루엇스며 破記錄的盛況을 突破하는 即席義捐이選손하얏다 이로써평권俱樂部一行은豫定한 『스케줄』을마치고 十二日朝大邱를떠나東京의學窓으로 도라간다 (芳名은追後發表)

白熱戰展開할 拳鬪大會 今夜!青年會에서

中央基靑主催의 第八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 第一日은 今十二日밤 八時부터 該館後庭特設링에서 열리리라함은 旣報하엿거니와 出戰勇士는 六十九名으로『플라이級』에 十九名『빤탐級』에 十四名 『페더級』에 十五名『라이트級』에 十五名『웰터級』에 六名이 參加하야 第一日부터白熱戰이演出될터인데 이들의 相對는 昨十一日午後七時에 同會館에서 抽籤決定하엿다한다

市內十八公普校 秋期大運動會 十三日부터開始

市內에잇는 十八個公立普通學校의 秋期運動會는 來十三日의於義洞公普校運動會로 開始되여十月十一日의 孝昌公普校가 最終으로擧行케된바 各公普校의運動會開催日은 다음과갓다

◇九月十三日=於義洞公普▲十七日=校洞公普▲二十日=水下洞 壽松洞 淸雲洞各公普校▲二十二日=麻浦公普▲二十三日=仁峴德壽各公普校▲二十四日=貞洞 龍山 惠化公普校▲二十六日梅洞 孝昌 各公普校▲二十七日=齋洞 竹添各公普校▲二十八日=渼洞 昌信各公普校
◇十月十一日=孝昌公普校

崇專蹴球팀 今朝京城通過

우리學園蹴球界의強豪 平壤崇實專門蹴球部一行은 豫定과가티 十一日午後十一時十五分 平壤을떠나 今十二日午前七時四十五分에 京城驛을通過하야 一路東京으로 向하엿다 一行은 來六日부터東京에서 立敎、農大、文理大、東京OB等과 四回戰을行하고 二十日에는 京都同志社大學과 一戰을交한後 歸路全大邱、延專、京醫專等과 對戰할豫定이라한다

學生水球大豫優勝

學生水上聯盟主催의 第一回學生水球(워터뽈)大會第一日은 十一日午後三時부터 城大풀에서 續行되엿는바 大學豫科軍이 優勝하얏다

○普專5 {1…1 / 4…1} 2醫專×

○大學19 {5…2 / 2…2 / 5…0 / 7…2} 6高商×

○大學9 {4…0 / 5…0} 0醫專×

○高商13 {9…0 / 1…0 / 1…1 / 2…1} 2普專×

○大豫8 {2…1 / 2…2 / 4…4} 7大學×

○大豫21 {7…6 / 3…2 / 4…0 / 7…2} 10高商×

滿洲野球팀來征

【新京十二日發聯合】全滿洲野球大會에서 優勝한滿洲國팀은 이번에 大每와東京俱樂部의 招聘을바더 日本에遠征키로되여 十三日正午부터 體育聯盟理事會를열고 最後의妥協을 行할터인데 一行은 古海監督水原主將以下十六名으로 來十九日新京出發 京城과龍山에서試合을行한後 門司八幡 全大阪、關大、京都大學、同志社 名鐵 東京俱樂部、早大慶應、明大新人팀等과 約一個月의豫定으로 試合을行할 豫定이라한다

庭球王페리君 今年中庭球行脚

【倫敦發電通郵信】世界庭球界의 第一人者『페리-』選手는 八月中旬에渡米同月二十九日부터『포레스트』에서 열리는 全米庭球選手權大會의 單式戰에 出場한後 繼續하야 米國 加奈陀 各地의『티나멘트』를出戰하엿다가太平洋岸으로 나와서 十月十七日『로스안젤스』發의 船便으로 最初의 就職處를 차저『시도니』市로 向하야 同市『스라쎄시짜』運動具店의 事務員으로서 勤務키로 되엿다는데『페리』選手는『시도니』到着後 十一、十二、一月(三個月間)의 濠洲各地를 轉戰 明年二月에는 再次 英國팀의 一員으로 南亞弗利加遠征에 加入하야 五月頃까지에는 倫敦에 도라와 『위블돈』大會의 出場準備를하는等 一年中 庭球旅行을 繼續하고잇다

天氣豫報

曇小雨

高氣壓은 北海道와蒙古에퍼저서滿洲、朝鮮은氣壓의谷이되야 低氣壓은 靑島의 南쪽과 松花江下流에잇서서 不連續線과함께 共히東進하고잇다 滿洲와 新義州、元山은비가오고 朝鮮及日本內地는 흐리기쉬웁고 半島의西岸은 南風이強하다

昨日最高 二十八度
最低 二十度二分
今日正午 二四·八

暴風雨警報

九月十二日午前八時仁川觀測所發表
▲南風이強하고 곳곳에 비가오리라 關北 沿岸을 警戒하라
▲南風이強하고 곳곳에 비가오리라 黃海 京畿 忠南各道의 沿岸을警戒하라
▲午前九時仁川觀測所發表 北風이強하고豪雨가오리라全南北의沿岸을警戒하라 低氣壓의中心은 黃海北部에잇서 七五三미리를示하고 東으로進行中이다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患者諸氏여 萬論보다 効果에 康實이 證明된 病狀이 路上하오니 効力의有無는 試用後 可知하겟사오며 用法은 注意說明書에 詳記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製造發賣元 救世藥館

設備完全親切正確主義
和順鑛務所
京城鍾路
(和信百貨店越便)
電話光化門長2659番
地方便宜를圖키爲하야 特히通信事務를取扱함

京城秋季競馬會
九月 十四日(土) 十五日(日) 廿一日(土) 廿二日(日) 廿三日(月) 廿四日(祭) 廿八日(土) 廿九日(日) 開催
京城東大門外 朝鮮競馬俱樂部

謹告
今九月十四日(土曜)은 新館移轉準備로 休業하겟사오니 널이容恕하야 주심을伏望하나이다
昭和十年九月十三日
和信

新學期開始 九月十五日(第一類甲組)學則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 各中等學校入學準備
中等科第二部 各中等學校上級編入受驗及鐵道從業員養成所遞信官吏養成所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校舍大擴張
第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五日
◇學則要二錢切手 校舍運動場敷地二千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電本二一六〇番)

癩病을全治
生命을 廢棄라고하는 癩病도 足히 畏할바업는니라 同胞는 特效創製한 治風丸을服用하서서 快히 … 製造五年來神効를得하와 全快한者 逐日踏至하오니 同病에 呻吟하시는 諸氏는 一次服用하시요 … 謝와 致賀가 …
◉五十日分 二十圓
晉州郡奈洞面篤山里 權仁圭 白

腫氣 靑山膏 에옹 히벅고

頭痛에 ノーシン
富士의 靈峰이 頭痛으로 누엇스니 노-신 먹이고 곳낫게하자
三十錢 五十錢 一圓 어느藥店에나잇슴

眼力酷使로惹起되는 憂慮할視力減退

近代生活로부터오는威脅

神經衰弱의主原因

近代人은 眼力을너무도過度하게酷使한다고하는 소리를가끔듯는바이지만 事實都會人의 視力이次第로減退하고 잇는것은 이미歐米의 專門眼科醫가 指摘하고잇다。事務에、讀書에、스포ー츠에、映畫에、街上의往復에、强烈한刺戟的光線에 日夜로쪼이고잇는 近代人의眼은 疲勞困憊의極에達하고 잇다고하는것도 거어過言은 아닐것이다。萬一一步잣칫잘못하면、혹은 近視眼、遠視眼、亂視眼 侵犯에사로잡히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眼은 胎生學上腦

의一部인바。發育의 初期에突出한眼胞의 前端이網膜이되야、그줄기는視神經이되야 腦에連絡되고잇습니다 따라서眼의疲勞는곳腦神經에依하야腦에影響을주며、그活動을阻害한다。都會病이라고하는神經衰弱의 大半은實노視力의酷使에依한것이라고 豫想되고잇습니다。

더구나우리의生活은 日加月增하야 繁忙하며、비지네스의過勞와相俟로서、視力의 減退와能率의低下、다시 무서운神經病에의直線코ー쓰를 따라잇는것입니다。

大體眼이라 고하는것은

五官의 뒤에 가장 敏感한것이여서、知覺의銳敏에잇서서도ー다른 感覺器、即聽覺、嗅覺、味覺、觸覺을 綜合한 것으로서、速度에잇서서도 二十倍、能力에잇서서도 八七파ー센트를占하고잇는것입니다。그마큼纖細한 刺戟을밧더라도 곳充血을이르키든지 눈곱이나든지 視力이弱하든지하는것입니다。

[illegible]하여、곳[illegible]의充血과[illegible]이생겨서 眼이멍하야 [illegible]과[illegible]을이르키여 能率이低下되는것은 [illegible]히[illegible]하는바입니다。

最近都會人 間에近視와

亂視는勿論、結膜炎、角膜炎、眼精疲勞、眼瞼炎、充血等에걸이는분도적지안다 그視力이急速히입허진다고하는悲慘한 事實을目擊하게되다。

그 結果은 眼力의 低下神經의 病的異常이되야 그生活能力上에 큰暗影을던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學生、事務家는그러한것도업시 激烈한光線과塵埃眼을부닥기게하는분細密한일에眼을疲勞식히는분等은恒常眼의衛生에注意하야眼의疲勞充血을回復하며視力을强化하며나아가서는眼의健康과 아울너腦의健全을保持할것이올니다

그와가티 視力의減退

는그사람의全生活에影響되는무서운强敵인것이지만그障害도各人의注意의한나인바어느程度까지防止할수가잇는것이다

例을들면執務와工夫한뒤에나讀書와外出그리고시네마鑑賞의前後等眼의疲勞充血을일으킬때에는點眼말고スマイル을點眼할것입니다スマイル는前述의視力減退을豫防하며回復식히은勿論이고結膜炎角膜炎도라호무眼精疲勞等을快適케治療하며眼의健康을安保하는優秀한眼科藥으로서定評이잇습니다

秋의享樂과眼

가을이차저왓습니다。놉히뜬구름결에도、슬슬부러오는바람결에도新鮮한季節의觸感을맛볼수잇습니다。스포ー츠에、하이킹에、讀書에、映畫鑑賞에、初秋의豪華한享樂의饗宴臺은開放되엿습니다。그런데그爽快한季節의饗宴을滿喫함에는애오로지그마큼한準備가必要한것이다。

×

스포ー츠와하이킹은가을의享樂의王座를占하는것이다。그리고가을의外光은盛夏보다도오히려紫外線이强烈하야貴重한눈을괴롭히는일이적지안타。스포ー츠와하이킹의前後에는 반드시スマイル를點眼하야、眼의健康을圖謀하는것이必要하다。スマイル는强烈한光線에서眼을安護하며언제나眼中을爽快케하며、明朗한氣分을주는眼科藥이다。

×

夜半까지혼자靜숙하게레ー풀을向하면 귀뚜람의伴奏도들인다고하는、때마침讀書의가을燈下近親의季節이바、健全한讀書를하시려면眼이健全치안어서는안될것이다。그리고人間의視覺은感受性이强한데、눈이疲勞케되는일이만습니다讀書한뒤에는반드시スマイル을點眼하야視力의回復을圖謀할것을잇지나안이하섯습니까

初秋에만흔 眼疾과治療

主로서急性結膜炎

★**秋風** 이불기始作하면 眼科醫師들은 急히多忙하게된다 이것은 폴ー、海水浴에눈을傷한사람、强烈한여름의紫外線에눈을過度하게疲勞식힌사람、첫가을이되자症狀가惡化됨으로써이다。이러한眼病의裡面에가장만흔것이急性結膜炎이다。

★**結膜** 炎은아시는바와가치 눈알이피렁도는것갓트며眼脂가나서가려우며 때로는알흐고 눈물이나고 또는視力障害을이르키게됩니다。이것이慢性이되면目이곱서피를을지만 [illegible]眼脂끼는지冊을보면疲勞하는지저무렵과夜半까지도 눈이아푸게됩니다。이것이오래가게도면角膜에侵犯되며 白眼이가세피아色으로되고 눈이甚히더러워집니다。

★**以上** 은素人으로도診斷할症狀이지만醫學的으로檢視하면 結膜의裏側으로부터 眼球에불게充血하야結膜이붓든가 물이찬것갓치되야서때로는充血하야班點을들수도잇습니다。또는眼球의結膜에는 粟粒과가튼것이生겨서 脂가만코 때로는膿을갓고잇습니다。이러케되면 星眼과紅彩炎을 이르키는일이잇습니다。

★**이러** 한眼病은輕하게보든지하야、길게끄을게되면 視力에影響하야 또는腦의活動을鈍하게하야 能率을低下함으로서一刻이라도速히治療를하야 恢復을圖치안어서는 안된다。治療法으로서는 第一眼을 淸潔케하는것이必要、더러운손으로 비비든지塵埃가만흔데 가지안토록 殺菌收斂、消毒作用의 特殊한眼科藥例하면 スマイル와갓튼 眼科藥을 一日數回點眼하시라

★**스마 일**(スマイル)는結膜炎은勿論도라홈、角膜炎、疲勞眼、찌부른眼、上氣眼、充血等의治療나豫防에도 良効가잇고視力을增하며、눈의美와 健康을增進식히는 最新眼科藥으로서定評이잇는것이다。

眼科藥スマイル는 殺菌、收斂、鎭痛、消炎의 各作用을具備하야點眼하면 眼을刺戟치안코、習慣性이되지안코、各種의眼疾을治療할과同時에、視力을돕게、角膜을保護하며、連用하면 明朗한瞳의지여내는高級眼科藥으로서 卄五錢、四十五錢、藥店 百貨店藥品部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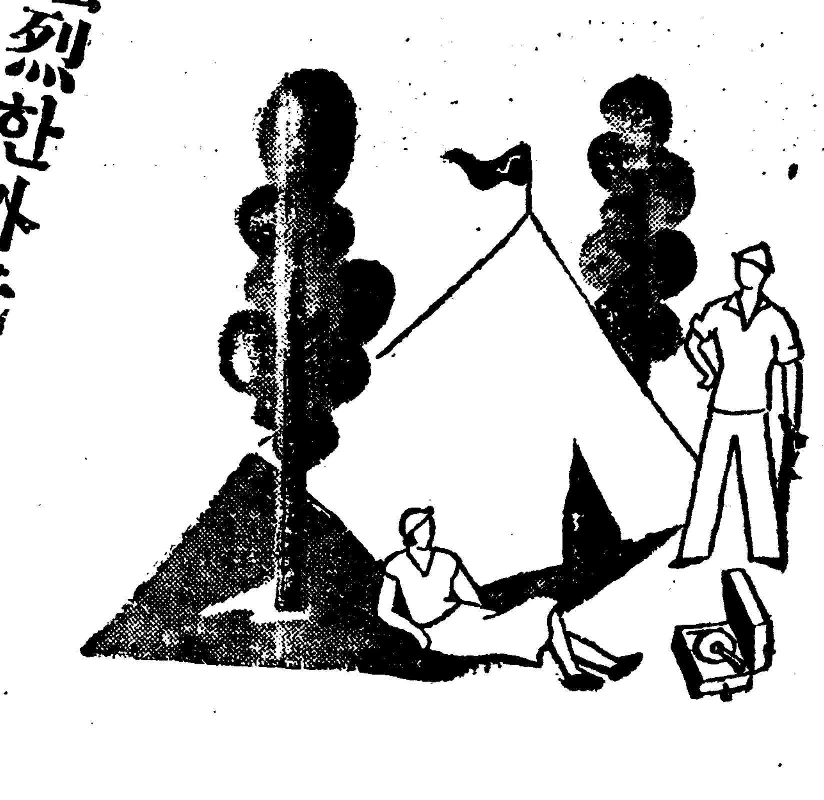
瀟洒輕快한 自動點眼式容器入 總代理店은 東京大阪玉置合名會社(振替東京七二一番)

理研ヴィタミンD 肝油
肺結核 佝僂病治療劑 定價 一·八五
藥店及百貨店藥品部에잇슴

盛夏를보내고 秋空에놉히울리는 スマイル의凱歌!

健全하고샛별갓흔눈동자가잇슴으로
참다운健康은完成된다!

强烈한外光으로부터眼을保護하는 スマイル



바다、山의歡樂境의愉快한生活이끗난後紫外線의强襲、熱砂와海面의猛反射 鹽水의 飛沫等이 原因된眼疾을一掃하고、都會의鋪道에殘暑의烈日、塵埃의亂舞、燈光의眩惑으로 因한眼精의 疲勞를 防止하고……

新秋第一步 勉學에、事業에、充實하고明朗한 生活을마지하시요!

スマイル은 最新學理에 基本이된正確한 處方과調劑에 依하야 各種의眼疾에 卓効를나타내며한발더거러視力을强하게淸澄한 瞳子를맨드는理想的高級眼科藥이다

主効
結膜炎·角膜炎
充血·도라홈
眼瞼炎·眼精疲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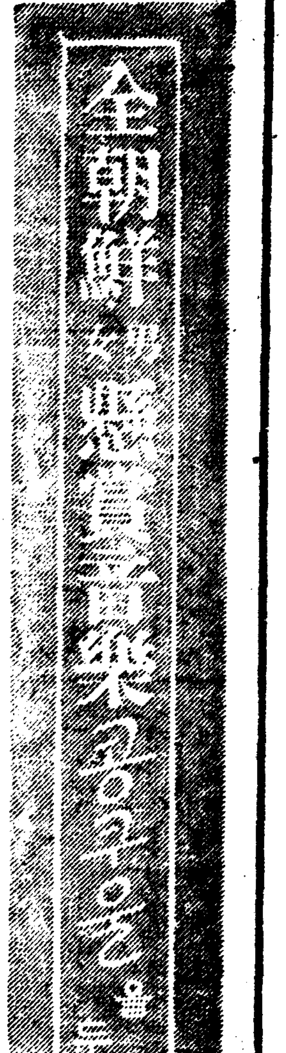
定價二十五錢·四十五錢·全國藥店及百貨店藥品部에잇슴

妙한 自働點眼裝置를가진 安全輕快한 容器류구삭구에 포켓에 近代人의好伴侶이다

連用하여도習慣性을갓지안코副作用絶無

總代理店 東京 玉置合名會社 大阪

004565



百人의入賞者보다 한사람의音樂家를

바이올린科審査員 洪蘭坡

藝術을 硏究하는이의 登龍門으로『콩쿨』이 잇는것과가티 音樂을 硏究하는 音樂靑年에게 音樂『콩쿨』이잇다。

말 하자면 이『콩쿨』은 音樂靑年의 登龍門인同時에 專門家와 非專門家를 區別하는 分岐點도될것이다。 그리니마큼 一國의 文化水準 特히 音樂的水準을 놉히는데잇서서 이번이『콩쿨』는 重且大한 意義가잇는것이라고생각한다。 勿論 이것이朝鮮에잇서서의 첫試驗인마큼 主催者側으로나 또는應試者側으로나 成功을 期하기는 어려울넌지모르지마는 그러나 이『콩쿨』이 半島樂壇에 끼치는 影響이나 反動은 果然크리라고생각한다。 임의 百餘名의 應試者가잇닥골드를때에 이번『콩쿨』은 그眞에잇서서

豫 想以上의 大成功을 遂하엿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賞의금을 取하는者ㅣ아니요 오히려 그賞의 光榮을바라는것이다。 이것이朝鮮의 音樂靑年에게 처음으로열리워진 登龍門이요 여긔에 入賞된者는 數千百의 音樂靑年中에서 推薦된 光榮의 所有者인同時에 압날의 朝鮮音樂史에 그 일홈을 빗치게되리라것을 생각하매 音樂靑年의피는 바야흐로 뛰지안흘수업을것이다。 審査의重任을 마튼사람의 一人으로서 이번 應試者에게 말하고십흔것은 먼저 音樂에對한 眞正한 理解와 아울러『콩쿨』에對한

眞 正한 理解를 가저달나는것이다。 一時的虛榮心이나 投機的手段에서 應試햇다면 設或 그의技術이 入賞될 價値가잇다할지라도 그것은 自己自身의 압길을막는 同時에『콩쿨』의使命을 阻害하는行爲가 되고말것이다。 審査員은 嚴正한 一主義를 쓸것은 勿論이지마는 그러나 表面에 낫타나는 技巧如何는 오히려 第二義가될것이요 應試者自身의 態度야말로 自己가自身에 나리는 가장嚴正한 審判이될것이다 그럼으로 不純한 動機에서 出發點의 第一步를 그릇치지말고

參 藝術家的良心에 立脚하야 먼저自己自身의 審査를바든後 應試함이 조흘것이다 그리하야 半島樂壇의 半島文化運動의 一大盛事인 이『콩쿨』이登龍門에光明을던지도록하라。 이번『콩쿨』에잇서서 提琴部는 그指定曲이 다른部門에比하야 좀過重한嫌이 업지안지마는『밋저야本錢』이란格으로 好奇心과 僥倖半分의 野卑한 投機的應試者를 未然에 防止하는意味로보아서라도 오히려 다른部門의 指定曲의 程度를 좀더놉히고십다。 그리고 어느部門에나 모다그러하겟지마는 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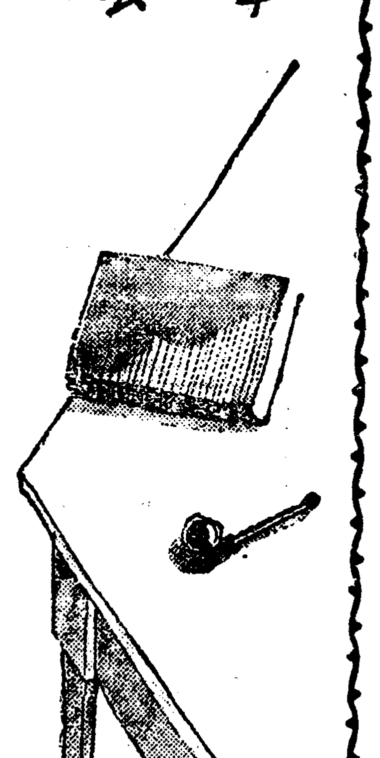
提 琴部에잇서서 曲目이 어려운이만치 拍子나 音程을 겨우맛칠수잇는程度의 演奏는 藝術的으로 놉히評價할수가 업을것이다。 하물며 音程이나 拍子를 未辨하는사람에게리요。 그럼으로 特히 提琴部應試者諸君에게 말하고십흔것은 이『콩쿨』을 音樂學校入學試驗과 同一視하지말나는것이다。 百人의 入選者를 내이는것보다도 오히려 한사람의音樂家를 어더보라는것이『콩쿨』의 使命이요 意圖이란 것을 깨다러주기바라는바이다。 끄트로 이번『콩쿨』을 契機로하야 압흐로 數만은 音樂家가 半島樂壇에 輩出하기를 心祝하며 朝鮮音樂『콩쿨』萬歲 朝鮮日報萬歲를連呼한다。

學藝

個人主義와性格描寫

現代文學의 한 潮流로서 ②

權重輝



平等은 論理以前의 要請이다 宗敎의 世界에서 神을 道德의 世界에서 絶對善을 要求함과한가지로 이것이업시는 다른모든것이 無意味에 도라가고 이것을 일코난 政治와 社會生活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는 【信仰】에서 비롯함이오 理論과 經驗으로 妥當하게 만드러 노흔것은아니다 道德을 可能케하기爲하야는 理性을 超越한 神의存在를 要求하고 社會生活을 可能케하기爲하야는 萬人의 平等을 主張할수밧게업다함이다

『데모크라씨』의 支柱인 自由도 個人을 基礎로하야 생각할적에 엇지못할槪念이다 自由란 무엇이라도 할수잇는것이라고常識은 말한다 常識이란 的中치는 못하여도 過히 틀리지는안는것이다 무엇이라도 할수잇다함은 決코 무엇이라도 합이올라는것은안이요 무엇이라도 할수잇는 可能性을 말함따름이다 사람의 生이 動物의 生과달은것은 사람은 時時刻刻으로 自殺의 可能을가지고 生을 【繼續】하는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사람의 生은 自由의 生이라 惡의可能을가지고 善을行하는때문에 그行爲가 善行爲다 善이나 惡이나 善行爲를할수업는 運命을지닌 神이나 聖賢의 善行爲나 惡行爲를 自由人의 善行爲나惡行爲와는 區別하야 보지안허서는안된다 사람의 行爲가 自由의行爲인때문에 사람은 責任을 질수잇다 自由는責任所在를 밝히는原則이되고 自由 卽 自律이라할말도 이가치 理解할수잇다 아모리 重大한 義務나 命令이라도 한번 自己의 判斷에 빗추어보아 當然이라고하면 곳遂行하는것이 自律이다

【敎會】의 律法이라고 先賢의 遺訓이라고 父兄의 嚴命이라고 無條件服從할것이라고는 생각지안는다 個人의 判斷이라는關門을 經由치안코는 한槪念이 行爲化하지는 못한다고한다 實際로 個個行爲가 自律的行爲가 안이라하여도 自由의 原則이잇는以上 個個行爲의責任은 으레히 個人의게로 도라간다 些少한過失에 對한 責任이라도 貸金業者와가튼 冷酷性을 가지고 罰을이가잇스리라고 밋는다이와·카라마소프의 大審問官이 自由는 무서운것이라고한은 이를두고 이름이다

上述로 미루어보면『데모크라씨』는 個人主義의 政治的別名임에 不過하다할것이다 個人의絶對性과 平等性을 【主張】하는 個人主義에잇서서는 個人과 個人의境界가 分明하여 一個人은 他個人의 越境侵犯을不許하고 自主 他人의內政干涉을안는『몬로主義』를 信奉하는『모나드』的存在이다 個人은 個人으로서 完全히 統一된 世界임으로 個個人自體의 價値나 等級의 高下가업다 絶對를 比較할 標準과 地盤이 업는 緣故다 사람사람을『하나』으로치고 하나以上으로 칠수업다』난 平等思想이 論理를 超越하야 成立될이 怪異쩍지안타 모든物件과 槪念의 境界를 밝히고 自己스사로는 蓮입에 몸망울가리 中心을向하야 옴치저 【圓滿】하라하는傾向은 個我關係에對한 外來干涉을 힘써排除하랴한다 個人과 社會가 相剋衝突하는問題에서도 社會를爲하야 讓步치안는다『커피』茶한잔이냐 全人類의死活이냐 하는問題에 逢着하야도 서슴지안코『커피』茶를마시고만다는態度다 政治는 個人의 行動을 拘束하는 모든制度機關을 改廢함으로만 存在理由가잇다한다 放任主義가 最善의 政策이되고 自由競爭이 不可避의結果다

이러한 個人은 肉體的으로 潔癖을 持하야 조출키를 爲主한다 될수잇스면 與人交際를 簡略하게하고 【交際】에도 形式과 節次가 잇스며 娛樂에도 禮法이잇서서 流連慌忙하는 弊端이업다 獨樂獨善을 수고로히 생각지안코 말을낫추어 사람을 求하기를 不屑不肯한다 故로 自重心이 大端한 德이되고 度를 넘으면 排他에까지 가기도무지안타『헤브라이』와『나치스』는 好個의 實例라할것이아닐가 名譽를 尊重하여 個人的侮辱에 對한 報復을 善行으로認定한다 前世紀까지 決鬪가 公認되여잇서서 復讐를 못하는 男子를 羞恥로 알엇서다「지-드」의말에 이런것이잇다 復讐할가 그를을 뉘우치고 【謝罪】할가하는 二者擇一에 處하야 中八、九後者로서 感嚴性이업는 卑劣한行動 또는怯者의行爲라하리라 西歐人은 容恕치안는것을 忘却치안는것으로서 性格한 한特質로보는 傾向을가지고잇다

露文豪「푸쉬킨」은 『에디오피아』人의後裔

그百年祭紀念硏究中發表

露西亞의 文豪「푸쉬킨」은 後明年 二月一日 이 百年祭임으로 蘇聯을비롯해서 世界各國에서 그紀念祭準備가 進行되고 特히 蘇聯에서는 文豪「고리키-」가 그委員長이되여서 紀念計劃事業의하나인『푸시킨百年祭 紀念論文集』을 發行한다는等『프쉬킨硏究熱』은 바야흐로 그絶頂에 이르려고하는데 이硏究中에서 判明되여 世界的興味를 끌음만한 事實은『푸시킨』에게 지금 世界의注目을끌고잇는『에디오피아』의 피가 석겻다는것이다。

『시킨』의 曾祖父『아브라-므』은 露西亞의 陸軍大將까지 지낫스나 실상은『에디오피아』貴族의 아들로태여나서『에디오피아』北部에 廣大한領土를가지고잇섯스나 奇怪한運命의 飜弄으로 國外에 轉轉하다가 맛침내『표-틀』大帝의 寵愛를바더 榮達하게되엿스니『푸쉬킨』은 이『아브라-므』大將의 曾孫이엿슴으로『에디오피아』의後裔인것이다。

葡萄牙의 少年天才畵家

『마드리-發聯合郵信』最近오-스트리아의『위-ㄴ』에 十六歲의 天才作曲家가 出現하야『데뷰-』해서樂壇을 놀나게 하는一方 今番은西歐『몰트갈』의『무르씨아』에겨우 十歲의 天才畵家가 出現해서 非常이評判되고잇다。

이少年의 일홈은『라파엘·마르케스』인데『무르씨아』의 某商人의외동아들로서 세살때부터 벌서 鉛筆이나 붓으로 父親의店舖압헤서 수지(조희)조각에그림을 그리고 잇섯는데 그림이매우 獨創的이여서 아주 豐富한 天分을發揮하엿는데 偶然히 그 父親이 아는某大家에게 이아해가 그린그림을 보엿든바 그 大家는 極口讚揚하고 將來에 놀랄만한成功을하리라고 激賞한 以來, 父親은『라파엘』을 그大家門下에 師事식혀서 工夫하게하엿다。그리고 最近 四年間의 傑作十七點을가지고 個人展覽會를開催하엿는바 그림은 即時에 全部가 賣約이成立하엿다고한다。그師匠인 某大家의말하는바에依하면『라파엘』少年이이처럼 名匠으로서 將來를 約束할수잇는 理由는 우선 무엇보담도 그림의 天分에依한 것은勿論이나 여기에더구나 그少年은 매우記憶力이조흔때문이라고한다。한번본 物件은 決코 이저버리지안코 어떠한 細部分이든지 잘記憶하고잇서서 아모리 긴詩일지라도 한번읽은것은 一言一句도 틀님업시 暗誦할수 잇다고하니 果然 將來가 무서운 아해라고 할수잇다。

作家·評家·讀者 (六)

金煥泰

그리고 現英國文壇에 잇서서 批評이 그러케 旺盛함에도 不顧하고 創作또한 어느나라에도 못지안케 活氣가잇스니 이는무슨까닭이냐? 讀者스스로 그의結論을 나릴수가잇슬것이니 나는 이에 【結論】을 나리기를 삼가야겟다。

最後로 우리는 批評을 一律的으로抹殺또는 輕蔑하는 우리作家들이입만 열면 말하는『批評家너이들이 그런理論만 하지말고, 그理論에 符合한 作品을 단一篇이라도 내어노아봐라』하는 그말을 吟味하여 보기로하자。아마도 이말 보다더 眞理에 가가온 批評家 가지고 우리의 數를 올니는 말도 드물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에 欺瞞되고 感情되여서는 안이된다

다음으로 批評家와 作家의 關係에對하야 考察하여보기로하자 批評家가 讀者에게 文學的價値를 直接으로 傳授할수가 업는바와가티 批評家는 作家에게 法을 直接으로 傳授할수도 決코 創作力을賦與할수도 업는것이다。 【偉大】한 作品을 産出식힐수도업는것이다。 그러나 眞正한批評家는 創作家의 發達과 創作能力의 健全한 發達에 가장 適當한 雰圍氣를 準備하여주며 作品生産에잇서서 가장 必要한 胎敎法과 出産法을갈으켜주는 文學的生産에 잇서서 創作力에못지안케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잇는것이라는것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嚴密히 區別하여 創作力과 批評力을 嚴密히區別할수는업스나 또한 어느程度까지는 區別할수도 잇는것으로批評能力과 創作能力이 다가티優秀한사람도 잇스나, 批評能力이 【優秀】한사람이 반드시 創作能力이 優秀하거나 優秀하지도 안타는것을 알어야한다。『로-리줘』나『아나토-ㄹ·프랑쓰』가튼 사람은 創作力과 批評力이 比較的 同等으로 優秀한사람들이엇스나, 저偉大한 批評家『쌩트·버-브』가튼사람도『볼룩레』『쵸세프·드로룸』가튼 創作을 試하야는 完全히失敗하엿고, 『맷쑤·아-놀드』나『월터·페이터』가튼第一流의 大批評家도 詩人이나小說家로서는 第二流以下에 떠러지고말엇스며『롤쓰토이』와 가튼 偉大한作家도『쉐쓰피어』를論함에잇서서 完全히 批評力의 不足을 【暴露】하고야 말엇다。

그럼으로『네가나의作品을 評하랴면 너도나만한 作品을 내여노흔後에 하라』거나『너의 理論에 符合한 作品을 네스스로 먼저 創作하여뵈여라』말하는것은 創作力과 批評力을 全然混同하여 버린것으로 低級한評論家나 그릇된批評的態度에對한 警告는될지언정 決코 眞理를 말하는것은안이다。

그리고 또우리 文壇에는 內心 가장 批評으로 【蔑視】하거나 또는 低級함에도不顧하고 自己의 作品에 一一히感歎하지안는 批評家가뭇을거두고 自己의 作品을 賞讚하는것만으로 使命을삼을그런 批評家의出現을 期待하는 野卑한 心情에서 가장 批評壇에 同情을가지고 寬厚한 雅量을 베푸는것처름『너머나評壇이貧弱하다。좀더權威잇는 批評家여出現하라』하고假嘆과激憤(?)를하는 寄特한 作家도잇스며 또는 自己의 作品을 【賞讚】하지안는評家를 조리-文藝理論의 A·B·C나 作品製作의 初步的常識조차缺乏되엿다』느니、『作品의消化는 姑捨하고 쇠통作品한개 똑똑이 낡을줄도몰으고 評을나린다』느니『低俗한써낼리즘』에 買收되어 作品評을 한다는게結局商業家的 野卑한 競爭心에서 自己以外의 모든作家에게 화살을던지여 自己文筆塔의 崩壞를 【防備】하라는 實로 非藝術家的卑怯한 性格의『發作』이니 하고 發惡을 마음대로 하는作家도잇다

그러나 이에는 批評家는다만 이러케 對答할수가잇슬뿐일것이다。『作品이업는곳에 眞正한 批評이잇슬수업다。그러니 그대부터 조흔作品을 쓰라、그러면 우리는 조흔 批評을 쓰마。 그리고 批評家는 決코作家를 賞讚하기만 爲한 御用的 【存在】는안이다。그러나그대가 조흔作品만쓰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를賞讚하는 評文을쓰마』

家庭

◇秋夕이야기◇

오곡이다익어서 한칭빗나는명절

명절중에배부른명절이제일? 언제나깁분추석날

이 명절 저 명절 해도 명절중의 명절은 팔월 한가위가 아닐까 합니다。덥지도 안코 춥지도 안하 귀후로도 제일 조흔 한가위요 달빗은 일년중에 가장 맑고 버렛소리는

달빗에어울리어

땀흘리고 애태어서 지어 노흔 논밧의 곡식을 걷우게 된 한가위어니 명절중의 명절로 치는것도 무리치 안습니다 그야말로 서도의 단오요 남도의추석이랍니다。서도에서는 아마추석노리가 단오스노리만 못한모의 명절을 수입해온것이 아니오니까? 아모러니 추석과 가튼 조선전래의 명절을 딸아갈수 잇겟습니까? 중국사람들도 추석을 명절로 삼아서 노리를 한다만은 그러타고

조선의추석노리

다 한가위는 原始의 유우와가티 조선서 전래하는 두명절로서 그 점만으로도 그나마지의 다른 명절보담 의의가 깁습니다

녜도 넷날 신라조에는 칠월보름날부터 녀자를 두패로 난호아 가지고 길쌈을 짜서 팔월보름날 서로 성적을 내기햇습니다。이 내기하는날은 지는편의 위로삼아 또 이기는 편의 축하삼아 떡을 한다 술을 빗는다

오늘 하로는 朝鮮 송편

가튼 송편에도 조흔날에 쓰는 것은 잘고 구진날에 쓰는 것은 굴거야 하는데 추석송편은 좀더 크고 무식스러워 손짜국이 꾹꾹내야 운치잇습니다。서울서는 추석송편도 잔치송편모냥으로 잔챙이를 맨들어·깃도 얌전하게 빗고 소도 얌전하게 너흐나 그것은 도리어 운치를 상하는 넘입니다。송편이야 어느곳이나 다스럽게 이약이 할것이 업습니다。단지 서울식으로는 밤소 게피소가 든것이 잇스나 그역시 추석노리로는 풋콩소나 팟소만 바이못할것갓습니다。그런데 서울은 솔닙도 귀하지를 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쓴 솔을 말리엇다가 다시 쓰거나 심지어 솔까지나무를 사다가 그닙홀 따서 쓰거나 하지를 안습니까? 그것은 솔내도 잘 나지 안하 아모소용이 업거니와 솔내가 난댓자 물결한 노릇입니다。솔닙이 업스면 차라리 말지 그런 구차한짓은 마시는것이 조흘듯합니

복을 비는 억만

전국이뒤집어서

뛰고 놀앗습니다。이것이 한가위가 명절된 시초라나요。약방에 감초처럼 한가위에 딸아다니는 송편도 그때부터 생긴떡이엇는지 모르지요。그러고 고려에와서 한번 어느때 발해라는 이웃나라와 싸홈이 벌어젓섯습니다。그결과로 고려가 이기고 발해가 젓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추석이 승전의 긔념일로 되야 더한층 노리를 굉장히한것이라나요。고려가 망하고 리조가 서고 또다시

리조가업서지고

오늘이 되엿건만 그 승전일의 긔념만은 충실히 직히어 가는 셈이지요。하여튼 서도에서보담 남도에서 추석을 더중히 녁기는 것만 보더라도 신라의 독특한 명절이 아니엇든가고 추측됩니다 이와가튼 신라의 독특한 명절을 단오와가티 중국식으로 알아서는 절대로안 됩니다。의식이 족해야 례절을 안다지만 의식이 족해야 명절도 알게 되지 안겟습니까? 아모리 한

송편이라도비저

노코 애기네들의 비음이라도 시켜노화야 명절답게 명절을 쇠게 될 것이 아니겟습니까?오막사리 초가집에는 어머니의 수심이 싸히고 애기네들의 떼거지가 늘뿐이외다。명절이 도리어 원수라 엄은 지나가기만을 고대하시는 그사정은 실로 딱하기 거지업습니다。그러나 그려치 안한 형편에 공연히 개화나 한체 추석노리가 다무엇이냐고 반대하시는 분은 식자위황의 얼간입니다。이왕 오래전으로부터

명절이라고하야

노리를 해 온 것이니 명절을 한때로 집안이 서로 모히어 단란하게 지대보시는 것도 유의무해의 일이 아닐까고 생각합니다。『만히도 말고 적게도 말고 그저 언는때나 한가위 처럼』이라는것은 녯날의 한가위人노래랍니다 이노래로만 보아도 얼마나 녯사람들은 한가위를 잘 놀앗든가 추칙됩니다。력사적으로로 그리운 한가위올씨다。파연 명절중의 명절되기 부끄럽

新刊紹介

△農村圖書館의經營法 李在鶴編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曆

九月十三日(金) 舊八月建乙酉(大)十六日 壬辰·水·鬼·危
●祭祀에宜함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라듸오

十二日(木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學修旅行 京城으로부터滿洲國(二)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仲秋古事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副業講話 野生藥草採取에對하야(一) 都逸涉
◇同八時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月秋名仲의저녁 ―平壤牡丹臺下大同江畔으로부터中繼― 柳京의名月賞況
◇同八時二〇分 特輯라듸오風物詩 八月佳俳全二景 李雲芳作

十三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平壤歌外 一、平時調 二、男唱지름 三、梅花打鈴 四、平壤歌 五、漢江水打鈴 張香蘭 細笛高敬德 簫崔禮成 伽琴池龍九
◇同二時 音樂講座 音樂듯는法 洪蘭坡
◇同六時 (東) 管絃樂 一、行進曲『華麗한都邑』아-렌作曲 二、귀여운애기…아이젠만作曲 三、學生 生活…로-린조作曲 四、勇敢한軍樂… 東京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乃木大將의追憶 李樂應
◇七時三〇分 副業講話 野生藥草採取에對하야(二) 藥專敎授 都逸涉
◇同八時 (東) 管絃樂 一、陵王…服部正編曲 二、森林의노래…山井基淸編曲 三、프루-트協奏曲 D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아메르트(獨奏) 魚好寬 宮內省樂部오-케스트라 指揮 가에라노、코메리
◇同八時三〇分 漫談三題 一、破鏡 二、烈女 三、빈대旅行談 黃村景
◇同九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蕉紅 金美花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九時 라듸오푸레이·미-랭 演出……朴珍 效果 金聲鍾
第一景 場所 어떤시골 때……八月十四日 (配役)
相錢(小地主)……李素然
崔氏(그의妻)……卜惠淑
相鎬(相錢의아우)……尹聖默
宋氏(相鎬의妻)……金仙草
相鐵(相鎬의아우)……金聖德
相鎭(相錢의아우)……徐月影
乙順(相錢의누이동생)……姜石燕
綺道令(머슴)……朴齊行
第二景 場所……漢江附近 때……八月十五日밤 (配役)
殷境(詩人)……徐月影
銀姬(音樂家)……卜惠淑
殷境의父(織物會社社長)……李素然
銀姬의父(鑛主)……尹聖默
奉一(뱃사공)……朴齊行
奉一의妻……金仙草
七得이(奉의아들)……金聖雲
◇同九時 民謠와農夫歌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農夫歌 丁元燮 吳太石 金世俊 趙相鮮 金俊守 金素姬

十四日(土曜)

◇午後六時 童話 밤은달 金尙鎭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三〇分 運動講話 가을철과登山 黃淡
◇同七時三〇分 常識講話 地球와人類의分布 辛[illegible]祚
◇同八時 新民謠五曲 一、孤獨의怨恨 二、織婦歌 三、新婚歌 四、무명납이 五、멋타령 曹松崗 大笒金永根 細笛高敬德
◇同八時三〇分 古談 十年積功 白岳
◇同九時 洋樂獨奏 一、소나타…헨델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第二樂章 알레그로 第三樂章 아-르코 第四樂章 알레그로 二、찔레꽃…山田耕作作曲 三、밤의노래…슈-망作曲 첼로 本宮倫光 피아노 淺原鏡子

黑風【127】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12

창순은 처음부터 홍경의 마음을 다소간 추칙하지 못한것은 아니엇스나 급기야에 그지경까지 이르고본즉 하도 어이가 업서서 말이업시 안젓다가

『그것은 말슴을 아니하신대도 처음부터 각오하고 잇는것입니다 저의 뼈를 갈어서라도 그 돈을 갑겟습니다』

하는 창순은 얼굴빗을 고처

『돈이라는것은 뼈를 갈어서 만드는것이 아니라 황금을 녹여서 만드는것입니다 나는 창순씨의 뼈를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의 밧고저 하는것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창순씨의 살(肉)이라면 황금으로 바꿀수도 잇켓지오』

『물론 황금으로 갑하드리겟습니다 그러나 가령 황금으로 갑흘수가 업슬지라도 그때에는 나의 뼈를 바칠수는 잇슬지언정 나의 살을 드릴수는 업습니다』

『세월은 길고 인생은 짜른것 입니다 속히갑지 아니하면아니될것입니다』

『객지의 외로운 몸으로 해적을 만나고 벽은 남어지에속히 갑흘수는 업습니다 힘이 도는대로 갑하드리겟습니다』

『내가 만일 의협하고 용감하야서 돈과 권력을 비로하게 아는고결한 남자 갓흐면 비용은것을 영원히 탕감하야 드릴는지도 모르지마는 도의종이 되는 나로서는 그러케 한만하게 기다릴수는 업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선우승을 친다하는 홍경은 일년만 하야주십시오』

『일년은 삼백륙십오일 입니다 그돈을 밧지못하면 하로에 한번씩은 나의마음이 앞흘것입니다 그러케 삼백륙십일을 지나면 나는 무덤 가운대의 사람이 될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바뻐이면 어떠합니까』

『안됩니다』

『삼개월이 아니면 도저히 될수가 업습니다 저의집에 도라가서 주선을 한다면 아모리 속히하야도 삼개월이 아니면 될수가 업습니다』

『그것은 창순씨의 사정이겟지오、창순씨를 사랑하는것은 나의 자유이나 나의사랑을 바들수가 업는것은 창순씨의 사정인것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자유이지마는 그기한까지 기다릴수가 업는것은 나의 사정입니다『사정』이라는것은 창순씨에게만 잇는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잇는것입니다

하야 창순의 하든말을 오곰박어서 말하얏다

『그러치만 그것은 분수이한사정입니다 아모리 급하야도해가 밤人중에 뜨는다든지 봄이겨울에 올수는 업는일입니다 삼개월만 용서하야 주십시요』

하는 창순은 진정으로 괴롭게 말하얏다

『용서 라는것은 다른사정을 위하야 자기의 사정을 희생하는것 입니다 내가 나의사정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창순씨의 사정을 용서할수가 잇다면 창순씨도 창순씨의 사정을 도라보지아니하고 나의 사정을 용서할수가 잇슬것입니다 만일 창순씨가 나의사정을 용서한다면 나도 삼개월의 기한을 오만번이라도 용서할수가 잇지마는 그러치 아니하면 삼개월을 오만동강을내인대도 용서할수가 업습니다』

는 홍경은 말내는듯도 하고 조롱하는듯도 하얏다

창순은 홍경이가 일부러 자기를 핍박하야서 야심을 채우라고 하는것을 아랏스므로 길게말할 필요가 업는것을 깨다랏다 그리하야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얏다 눈물감고생각하는 창순은 그러한 비열한 남자에게 도의힘으로 곤욕을당하야 피할수 업는 경우에는 차라리 깨끗이 죽는것이 조컷

新日本의傑作品

[illegible] 一미싱과 同一 價格은 舶來品의

約半値

陸軍省御用 海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各女學校採用

新日本의傑作品

國産 蛇目미싱은萬國特許의新機構를 가진 모든部分品도 世界到處에서 隨意로살수잇습니다 特히我社東京、大阪兩工場에서年産額은巨額에達하고從業人員은四百名今也自他가 共認하는 東洋一의미싱製造會社가되어잇습니다

優秀 國産品으로 特히絶讚은 씽거ー미싱과同一하고 價格은 外國品의 約半額이되는것도 國産인때문입니다、지금은『싸고도좃타』는 評判을어더 海外各國으로더러더럭輸出되는國産미싱의最高位를占하고잇습니다

本社 는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會社이오그事業은 甚히將來性이만흔것입니다 卽一個의事業을計劃하는경우에提携할것은最良의相對者가아니면안됩니다。

本社는 午前六時事業의先導에서서『明日이잇는會社』로그最適任이니貴下의期待에十二分으로相副할것을確信하는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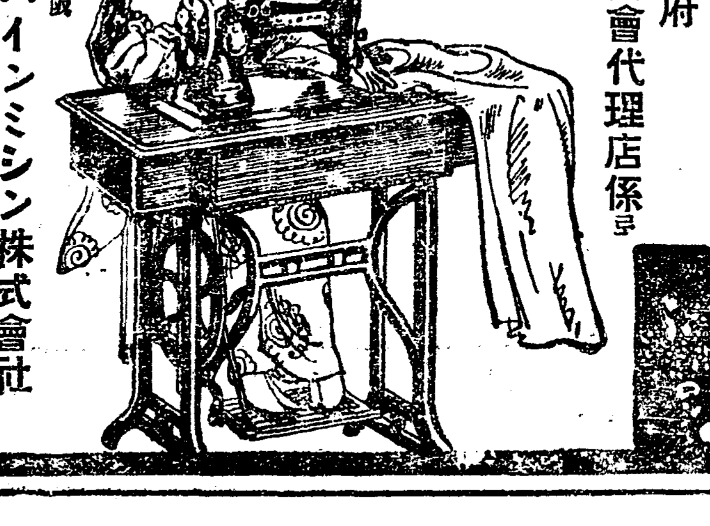
全鮮進出을爲하야 一郡一店의代理店을 急募 함

늘어가는것과 提携하시라

代理 店은本社의用先代說者인故로本社에서는今回 全鮮의各地에區域을制定하야代理店을募集함에際하야도事業에身命을다하야長久히提携하시기를約束할수잇는誠實한분을求합니다。

希望하시는販賣區域 **一郡** 에一店을標準삼는故로 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 年賀上豫定數及特定價格詳細히回答하겟습니다代理店希望者는

京城府 萬稔商會代理店係로



東京·大阪 國産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全鮮總代理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市電黃金町入口下車向鐘路西側九軒目)

發賣元 萬稔商會京城支店 電話光化門一七三五番 振替京城一四五三八番

本社—東京市中野區宮園町
支社—東京市丸ノ內昭和ビル
大阪支社—大阪市北區絹笠町大江ビル
各地所社—橫濱、神戶、京都、靑森、甲府其他

國産 蛇目미싱을

經濟解說 "米價의焦點" 新穀出廻期前後 ③

申泰翊

그럼으로 今後米價의動向을 左右케할材料는 첫재로 今年十月末에 가서 얼마큼의 쌀이 남게되느냐 即 所謂米持越量如何 둘재로 今年米作이 얼마나 豫想한바대로 日本內地朝鮮이 모두 平年作 또는 그 以上의 數量을 보게될가 하는 그 豫想과 背馳되야 平年作以下의數量을 나타내게될가 셋재로는 以上의두가지를 가지고서 明年度米需給推算이 圓滑케되는數字가 나오게될가 그러치안코 그圓滑을 缺케될는지 하는것으로써 그要點을 삼게되며 이中에잇서 今年米作에對한關係事情은 前回에서 말한바임으로 이곳에서 略하지만 그둘재의持越量과 셋재의 明年度需給推算에 對하야 重要한 말할必要가 잇다

×

(一) 지난八月一日現在로今年米穀年度持越이 豫想되는것이 一千萬石에 達하는만큼 相當한數量으로될것이다 이것만 가지고서 생각하면 올에잇서 市中在米乏이라할이 생길까닭이 업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全部가 市中에 풀고잇는쌀이 아니라 政府所持米가 七百餘萬石으로 그大部分을 占하고 民間의在米는 겨우 百七十餘萬石이 될뿐이다 이처럼 持越量은 一千萬石에 達할것으로 보히면서도 實際에잇서 民間의流動되는것이 이 오즉 百八十萬石에 不過케됨으로 在米乏의소리가 노프게되는것이며 딸어서 이것을 緩和케함에는 政府의所持米中에 相當한數量이 民間으로 안도라나오고는 到底히 端境期의在米乏을緩和키어렵다고 보는 根據가 이곳에 잇다 그럼으로 明年度米穀年度로 繰越米가 넘어가 그數量이 만케되드래도 亦是 實際에 잇서는 그大部分이 直接으로 米價에 影響을 밋치게할힘이 적게되는쌀이다 그러고 今年米作이 平年作以上으로 올해의 豫想과 가티 되는경우에 만약 端境期의 米價高反動低가 잇게되다면 그反動低를 멈추게 할에잇서 올에 政府가 買換條件으로 한 米拂下를 相當히 하여줄必要가 잇지안흘가 생각하다 그러치만 政府로서 이것을 맘노코 못하는 것은 今年米作이 올까지 平年作의 豫想이나 압흐로 實收까지는 아즉도 結實其他의 만흔機關이 잇는때문에 積極的으로 이곳에 손을 대지못하고 오즉 愼重한 態度에 끄치게 되는것이 아닌가한다

×

(二) 다음에 明年度需給을 어떠케 보아야 될가 今年米作에對한 實收量 모르는마음 이것은 實收보도 容易하다 그러나 오늘의 豫想대로 된다 假定하고 推算한 當局者의 豫想은 다음과가타

▲日本內地의 今年米六千百萬石、持越量一千萬石 이곳에다가 朝鮮、臺灣米移入 二千六百萬石을 加算한다 이에對하야 明年十月末의 持越量은 亦是 一千萬石에 達케 될것임으로 그需給의 均衡을 保持할수잇을것이라고 한다

以上과가티 推算된 數字上으로는 가장 適當한 需給의 內容으로 될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그러나 이數字가 確實치못할뿐만 아니라 今年十月末持越量의 數字가 어떠한 變化를 보게될는지 모름으로 明年度 米需給에 對하야 漠然히 樂觀키 어려운 餘地가 만코딸어서 米價擧動도 容易히 定見을 가지기 어려운것이 事實이다

×

이와가티 올해에잇서 米價의前途는 透明을 缺한情勢에 잇다 그러나 이에對한 兩面으로 보면 大體다음과 觀測이 나오게된다 即

(一) 今年米作이 平年作以下로 不作이 될때에는 올과가튼 政府의 救濟的對策으로는 端境期에 끄치는 米價高가 되기어렵고 新穀出廻期에잇서도 比較的相當한 노프감을保持케되지안흘가

(二)그러치안코 豫想대로 年作의境遇를 보게되면 端境期에 米價高이엇든 反動低를 招키어렵게되지 안흘가 하는것이다

—(完)—

京城市內六銀行 總貸付五億餘圓

比七年九千五百萬圓의激增 殖銀은三億七千萬圓

京城에本店을 有한銀行의朝鮮內貸付金總額은 今年六月末現在로 五億四千四百五十萬圓으로 昭和七年六月末現在의 四億四千九百萬圓에 比하야 九千五百五十萬圓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이것을 行別로 比較하면 如左하다(單位萬圓)

	七年六月	十年六月	增加率
殖銀	三一、二〇〇	三七、三〇〇	一八%
朝銀	六、一〇〇	七、三〇〇	一五
漢銀	一、九〇〇	二、八〇〇	四七
東一	一、三〇〇	一、八〇〇	三七
商銀	四、三〇〇	五、二〇〇	二四
海東	一〇〇	二五〇	一五〇

以上에 依하야보면 貸付額의 最多額은 朝鮮金融의 產業金融界를 支配코잇는 殖銀의三億七千三百萬圓이 斷然首位로서 六銀行總貸付額의 六割에 相當한터이며 그다음은 朝銀의 七千三百萬圓이고 三位는 商銀의 五千二百萬圓、漢銀、東一의順序로서 最少額은 海銀의二百五十萬圓이엇다

資金需要激增!

朝鮮內銀行의貸出總額近六億圓 比前年五千餘萬圓增

京城手形交換所調査=八月末現在의 朝鮮內銀行 預金貸出狀況은 預金 三億二千三百五十萬六千圓 貸出 五億九千四百十五萬九千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預金 一千五百六十三萬四千圓 貸出 四十九萬六千圓의 各減少를 示하얏스나 前年同期에比하면 預金 一千九百八十七萬圓의 增加에對하야 貸出은 實로 五千四百二萬四千圓의激增을 告하야 朝鮮內의 資金需要가 一個年間에顯著한飛躍을 示코잇다한다

京城의商品、金融

八月狀況=朝銀調査

▲米 天候의順調는 日本內地朝鮮豐作의 豫想을 가게하야多少賣物이 잇섯스나 모두消化되고 甚至於 新蓬萊米도 歡迎되엇다 七日에好順임을 不拘하고 天災交遺와 浮動米가 적어俄然硬化하야 一齊히 昂騰하고 正粗는 九圓以上을 唱케되엇다 九日에 日本內地颱風과 南朝鮮一部의 強風雨도 被害가적다고하야 人氣가不振하엿스며 中旬에드러가 다시京阪地方의 風水害로 南朝鮮地의 旱災가 莫大함을傳하야 氣配가 硬化하엿스나 好順人氣에 눌리며 保勢狀態가 繼續하고 十三日에 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 二千二百卅六萬七千石(比前年同期 七百七十二萬三千石減)의 發表는 現在의 正米枯渴에 持越過少를 添加케하야 氣配가 急强化하엿다 下旬도好順調로 騰勢가업섯다 在米乏과 天災豫想으로 賣物이업고 二十七日에 政府米百萬石 買換과 五十萬石의拂下가 發表되엿스며 또 日本內地增收豫想說이잇서 軟化하엿스나 二十八日 日本內地各方面颱風襲來의 報로 被害의 過大說과 好順으로 氣迷狀態를 呈하야 過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三等合格	二六圓六六	二六圓九六	二六圓六六

▲粟=滿洲、天津、靑島等地新粟의作況이 매우良好하다는 情報로 年內渡先物은 現市勢보다 二圓低로 多少賣買가 成立하엿슴으로 產地及 朝鮮內各地가 모두 빨리 在庫品을 處分케되엇스나 顯著한賣買가업고 市勢漸落步調가잇는데 不作市勢는 自然訂正될것이라는 觀測으로 暴落을 念慮하면서 過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滿洲粟	一〇圓一〇	一〇圓三〇	一〇圓一〇
天津粟	九圓一〇	八圓六〇	八圓二〇

▲大豆=滿洲大豆는 去月下旬以來 反騰步調로 朝鮮豆에對한 買進이잇서 上旬은 一、二十錢이 昂騰하고 그뒤 頑强한保勢가 繼續되엿다 中旬以後는 九州地方新大豆의 出廻가 漸次增加케되야 朝鮮豆의 賣行이 全然減退하고 下旬各品 二、三十錢低의 弱含裡에 過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龍山	一九圓五〇	一九圓五〇	一九圓〇〇
鐵長	一九圓一〇	一九圓一〇	一八圓三〇

▲小麥 外麥 日本內地麥의昂騰과 米의强調로 朝鮮麥도 農村의消費가 만코 出廻는 例年의五割에 不過하엿다 市勢는 일즉은殺頭에比하야 比較的低價圓임으로 買가旺盛하야八月中 最高低值動은 二圓五十錢을示하엿는데 日本內地麥에 比較하면 多少過騰한傾向이잇스나 目前은다시 强氣配로過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京義沿線	三圓五〇	三圓四五	三圓五〇

▲綿絲布 持越夏物의 幾品을急賣하엿스나 各旬을通하야 市勢不安定으로 賣買가 적고閑散裡에 過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三 A	一七四圓	一七四圓	一七〇圓
扇 面	一六五圓	一六五圓	一六五圓
仅人平熟素	圓三	圓三	圓一五

▲肥料。硫安은 稻作에는 追肥로 多少팔리고 도蠶茶用等少量의實行이 잇섯슴에 不過함으로 市場不振하야 保勢이엇다 例年은 三圓五十錢의 勢이엇든것이 今年은 品薄과 環境의 好轉으로 高價가 維持되엇스며 大豆粕은 全然不需要期로 商談은 업고市勢는 高氣配이엇다

	上旬	中旬	下旬
硫安	一圓三〇	一圓三〇	一圓三〇
豆粕	一圓三〇	一圓三〇	一圓三〇

▲金融 平穩裡에 推移하엿는데 京城府內 組合銀行帳末은 預金總額一億千八百八十四萬六千圓、貸出總額一億三千三百六十五萬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一千三百十三萬九千圓減少、貸出三百五十二萬圓의減少이엇다

二百廿日도 各地가平穩

中江鎭 曇	大邱 曇	新義州 雨	釜山 曇
平壤 曇	下關 晴	仁川 曇	大阪 曇
京城 曇	東京 曇	全州 曇	天津 曇
木浦 曇	新京 雨	濟州島 晴	奉天 雨
雄基 曇	營口 雨	城津 曇	大連 雨
元山 雨	靑島 雨	江陵 曇	上海 晴

中國金融界危機

依然未解消一層混沌?

【上海十二日發聯合】中秋決濟期의 到來는 金融逼迫과 相俟하야 上海財界의 形勢를 極度로 警戒中인데 아즉은 意外로 平穩裡에 推移될것가티 보인다한다。이主要原因은 農村疲弊를 中心으로하는 僻地經濟恐慌이 아즉도 充分히 表面化치안코 또

過般 商工業者에 金融公債二千五百萬元의 回收가 譯讀에 依하야 延期된것이다 그러나 今後年末까지 水害에 基한 農民購買力의 低下는 必然的 地方財界를 漸次 動搖케할것이며 따라서 金融中心地인 上海에 惡影響이 밋치게 될것으로 豫想된다 더구나 農產物의

出廻는 中秋以後이므로 그代金이 어떠케 움직이게될는지 가장注目을 끄흔다 何如間 大局的으로보아 中國金融界의危機는 아즉도 解消가 안된것은 두가지의重要한觀測이잇다

一、九月十日 香港으로부터 百六十六萬元의 現銀이、輸入되엇는데 이것은 滙豐銀行의 오메떼金으로 觀測되는데 지난 二月下旬의 再輸出銀究稅布告以來

最初의것으로 그名目은 勿論再輸出로 되엇는데 上海市場의 金融緩和에는相當히 效果가 잇슬것으로 今後此種의 現銀輸入이 增大할傾向이다 이것은 一面 人氣의安定에 資하는바가 大하고 따라서國府今後의 對策으로은 在中各銀行으로하여금 此種輸入을 獎勵하야 이로써將來는 現銀輸出制限을 撤廢하고 健全通貨의實現에 힘쓸다

一、四川省境을 中心으로 亂發되든 紙幣는 相當한 巨額으로 觀測되는데 將來 이것이 上海에 還流하야 現銀兌換을 要求하게되면 우선 다시 金融危機가 招致케될은當然하야 果然 國府當局에 어떠한對策이잇슨지

必要 注目을 끄흔다 어떠튼지 今年의中秋決濟가 平穩한은 一時的으로 今後의 中國金融界는 더욱混沌케 될것이라고한다

全南北秋繭

品質과作況不良

秋繭은 西朝鮮의 旱魃地方에 出廻最盛期에入하얏고 中南朝鮮方面도 漸次出廻가 시작되나 全部의 出廻完了는 九月末頃이 될것갓다 그리고 今年의 出廻狀態는 繭이時價貫當三圓乃至三圓三十錢唱으로 豫想外의 高價를示現하고 잇슴으로 自家消費가 殆無한 狀態로 豫期以上의 增에 達할듯한데 作況은 中西部가 豊作임에反하야 全南北은 旱魃關係로 品質作況共히 不良한結果 南朝鮮方面의 工場은 益益原料難에陷할것으로보인다한다

製絲原料

尚一割不足

朝鮮內의 輸出用 製絲工場은 九月一日부터 一割操短을 行하얏는데 아즉도 二割의 原料不足이 豫想됨으로 目下 對策을講究中이며 繭高에 刺激되어 秋繭은 一割의 出廻增加가 豫想됨으로 結局 日本內地로부터의 原料補充은 一割內外로될것갓다고한다

上旬局鐵貨物發送

九月上旬中의 鐵道局線貨物發送數量은 合計十三萬九千三百三十五噸에 達하고 前年同月에 比하야 三萬七千五十九噸의 增加

米日爲替弱保

【釜山十一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比하면 賣 廿九弗八仙으로 一仙低이요 買 廿九弗六仙으로 一仙低이다

東京爲替(十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一
	買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卅二分五

大阪爲替(十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
	買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經濟界消息

○米倉支店長會議=米倉會社에서는 十二日午前九時半부터 支店長會議를 開하고 午後도繼續하야 開會하고主로 新米出廻後의 對策을 中心으로協議하얏다

○石炭車百十輛新造=鐵道局에서는 龍山工作會社에 製作注文中인『다시부』型鋼鐵製 石炭用車百十輛中 最初의五輛이 九日 局에納入되엇는데 爾後繼續하야 五、六輛식 試運轉을 施行하고 順次納入하야十月末日까지에는 全部完納될터이라한다

商況(十二日)

株式 爆發後에 一息

前場爆發 伊『에』開戰急迫으로 戰爭氣分이 濃厚하야 昨後場 東京先驅로 一齊暴騰된뒤를 이어 今前場은 買物이 殺到하야 東新百四十七圓六錢、日產八十圓三十錢、大新九十圓九十錢에 爆發되엇다가 東新七圓二十錢、日產八十圓十錢、大新九十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六十一圓七十錢、朝新二十六圓三十錢으로 六圓十錢大引 日魯五十六圓三十錢 拓新十一圓七十錢이엇다。

低迷에서活氣 近來의大商盛

【東京電話聯合】今春以來 商品界不振乃至는 財界前途觀測으로 低迷不振을 免치못하던 株式市場은 前月末에至하야 四圍情勢로 漸次 活況을보이어 위선 軍事株를中心으로 買物이 擡頭하야 漸次 株價를 昂高케하더니 一兩日以來 俄然 活氣를帶하야 暫時彷徨하든 融資側의 買進도出現하고 市場好轉으로보는 側의 買物이 續出하야 十一日의 市場은 長短共히 一段緊張味를帶하야 長期는 東株新舊의四五圓高를 비롯하야 人絹株、肥料株、炭鑛株、石油株等이 一齊히 二、三圓暴騰되고 其他諸株도 一齊히 好調를示하야 短期도 新東은 百四十六圓臺로 最近의 高價를 示現하고 其餘의 諸株도 大槪好調를示하야 取引高가 五十四萬株로 近來稀有의 商盛이엇슴으로 注目되엇다

全面的의躍進

買方有利情勢

【電通東京電話】歐洲時局의急迫은 市場의 開戰豫想을 爆하야 十一日의 東株立會는 戰爭不可避로買氣가立하야 軍需工業株昂騰에始하야 後場은 全面的의大躍進으로 近來에잇는 大盛況의 場面을 展開하얏다 目前은 伊『에』問題로 多大한 關心이잇는데 內外情勢는 大體 買方側에 有利한 情勢를 示하며 工業會社의 夏期業績도 豫想에 反하야 意外로 好調인 一方 米繭高가 農村經濟를 好轉케하야 環境도 明朗케되엇다한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四	五四	五四八七〇

諸株一齊爆發

歐洲風雲急迫

伊『에』兩國、非開戰問題를中心으로 市場은 極度의 緊張에 陷하야 夏枯期보다 甚한 閑散保合이 거듭되더니 伊『에』紛爭은 去益擴大되어 伊太利는 全土一千萬人의 總動員實施로 伊國民軍의威力을 全世界에 示威하는中이며 一方 聯盟에잇서는 英國이 自國提案에 不賛일것가트면『로카르노』條約 不遵守를 내세우고 佛國에 肉迫함으로 消極的인 佛은 左之右之를 苦慮中으로 英伊關係가 複雜해지고 延하야는 獨逸까지 割外여들 것으로 歐洲天地의 形勢가 險惡케되어가는터로서 全世界注視 開幕되는 聯盟本會議에서 어떠한 波瀾이 惹起할것인지? 歐洲가 뒤법석이면 그럴수록 日本에 有利하다는 觀測下에 伊『에』開戰을 기다리던 買方의 突擊이 開始되고 形勢가 不利를 覺한 軟派의 踏物도 市勢는 드되어 上分岐爆發을 告하야 今前場 當地는 東新百四十七圓臺、日產八十圓突破、大新九十圓突破의 破竹的騰勢를 示하얏다

後場一息 後場은 東新百四十七圓六十錢、日產 八十圓、大新 九十圓四十錢、日魯 五十六圓三十錢에 强調 其後 買氣 一息을 少押新 大引

今日財界(十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京城正米 / 仁川改良 / 正租 / 一斤價 在來

◆市中金融 貸 一分八厘 / 十三錢五厘 / 一分八厘 / 二十錢五厘

◆株 朝取 新 / 東新 / 日產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黃金 / 銀 / 現 / 先

實物前場取引

受渡高二百二十枚 ▲日本製作二〇〇 ▲大阪商船三〇 ▲帝國新三〇 ▲日本海新〇〇 ▲川崎造船二〇 ▲川崎汽船 ▲鐘水造三〇 ▲同新 ▲에다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當限落으로 閑散裡에 保持尚로 各債共히 頑强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二五
佛貨四分利	一八六、九〇

米期 伸惱裡에 少堅

前場小返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四十五錢止와 共히 二十七圓十四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五十六錢인 二十七圓二十錢인 六丁高하고 二十七圓二十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六十一錢까지 返戾하야 六十錢을 中心으로 揉合하다가 六十二錢에 止場하엿슴 伴하야 最高二十九錢으로 結局 十九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續强 後場은 二十七圓二十九錢에 始場後四節二十九錢까지 同價로 釘着이 되고 五節三十은 로別欄가리 止場하다

三大厄日天候

二百廿日도無事

日本內地及 朝鮮을通하야 局部的으로 風水災의被가害업는바는아니나 農家의 가장 注目을 끄는 二百二十日과 白露等 厄日이 無難經過되고 二百二十日인 今日도 無事한모양인데 今朝 仁川觀測所로부터 發表한 天氣概況에 依하면 左記와 如하다。

北海道의高氣壓은 急히 勢力을得하야 七六七粍를 보이고 蒙古의高氣壓도 急昇하야 七六四粍를 示하야 南東方에 勢力을 뻐치엇고 松花江流域은 黃海北部로부터 揚子江下流域을 걸처 不連續線을보이고 잇스며 從하야 北中國 及 滿洲는 北風이 强하고 四五十粍의雨가 잇섯스며 朝鮮의 黃海中部 及 咸北은 南風이 强하고 元山及 新義州에는 小雨 其他는 曇天인데 北海道 及 蒙古의 高氣壓은 어데든지 優勢로 滿留의 傾向이 잇스나 黃海北部低氣壓이 不連續線을 伴하야 東進함으로 今日은 南風이 北西風으로 變하야 處處에 風雨가强할것이오 東側 及 南部에 小雨가 남아잇스나 其他는 北西部로부터 次第로 天氣良好하리라고 한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當分保合乃已

七圓臺上에서

退般 朝鮮南部를 襲來하든 颱風이 九州一部를 掠襲한關係로 期界의 買氣旺盛하야 阪地는 三十圓二十二錢 當地는 二十八圓 〇七錢까지 奔騰하엿스나 問題의颱風은 다행히 큰 被害가업시 日本海로 脫走하고 紫하야 政府의 百萬石拂下說이 寶氣를 助長하야 當地는 高價에서 百 丁瓦落을告하고 阪地는 八十丁의瓦落을示하엿다 此邊에는 利食買物이現出할뿐아니라 買方의

各地正米

仁川保合

期米는 好調를示하나 依然人氣不立이오 閑散裡에保合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京城同調

唱은不變이나 雙方既視로 取引이업섯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

釜山不勢

期米는 또好勢를示하나 高價警戒의 市場은 買氣依然不昂이오 秋夕關係로 取引이 萎縮되어 僅히 一〇六叺의閑散商狀인 角ア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大邱保護

買方은 氣迷인 이오 新規取引이 잘안되고 角ア三等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群山小緩

秋夕과共히 產地實物杜絕에 日本內地拂下米의好實行이오 期米小緩을 뒤고도 氣配十錢低의 小緩商狀인 ク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四圓

木浦强含

實物著減으로 去益賣付困難의 모양이오 商面은 閑散이나 市況强含인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南浦不變

所持의 賣止想度로 市勢는 前月同日보다 一圓四十錢高인 丸ナ總尾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堂島前場引戾

【大阪電話】今朝二百二十日의厄日은 平穩히經過되엇스나 辭氣不去로 神戶側 株式側의 買로 好勢를 取하얏다。

賣方 地場、中東側 乘換
買方 神戶側 地場株式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株市場六感

伊『에』開戰이 얼른 안된다고 豫想되더니 웬걸 昨後場부터 今前場에 百한 爆發은 壯觀▲東新百四十七圓臺 大新九十圓、日產八十圓으로飛躍▲昨前場寄價에 比하야보드래도 東新五圓四十錢高、日產 三圓五十錢高、大新三圓四十錢 高▲無力去勢라던 東新이 그래도 버티고 先驅한모양▲形勢가 이러케되니 市勢가는대로 두고볼밖게▲伊『에』開戰 안되고 英、佛關係가 擴大

米

今日은 二百二十日인 三大厄日의 最終日로서 大體 天候가良好한 편▲二百十日、白露、二百二十日等 三大厄日만은 無難하엿스나 그中間의天氣가 不順한 것이 遺憾▲果然 傳하는消息과如히 日本內地는 平年作、朝鮮은 平年作以上이 될가함이 疑問인걸▲一時 颱風의威勢으로 二十八圓〇臺까지 奔騰하엿든 市勢는 不知中 百丁餘나 瓦落▲果然 政府米의拂下는 그數量이 그얼마이며 昭和九年度米는 그얼마나 拂下?▲九年產이 拂下되다면 當中兩限의 一落은 免치못할일이엇다 그러나 此亦疑問▲그러나 今回에 朝鮮에잇는 有米를 拂下하지 안흐면 當地의 當限은 依然 頑强할모양▲그런데 今後 大勢를 一考하면 大體 本年度의 天作은 既히 一巡하엿다 할수잇슬 까속 찰아리모도리賣가 得意가아닐지 몰라▲그러나 此에서 떠러진다 할지라도 大幅瓦落을 또한 업슬모양인즉 이로부터 小掬主義가 得意?

되지 안는다드래도 歐洲不安은 不去일지라 戰爭氣分이 解消되지 안흘것이나 ▲정작 開戰되다면 戰爭世界一巡으로 日間의 市勢는 자못 注目에 値한다。

期米(十二日)

◆朝取期米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劉康益夏商店 仁川期米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海岸町 京城黃金町

仁川期米 福 吉村取引店

金融(十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穀(十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十二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大阪三品期變 ◆鰯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大阪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